

사자성어로 쓴 성경

한자학습과 성경공부를 동시에 일거양득!

네 글자에 담긴 지혜의 말씀
사자성경 시리즈



1. 창세기 - 욥기
2. 시편 (이하 출간 예정)
3. 잠언 - 아가
4. 이사야 - 에스겔
5. 다니엘 - 말라기
6. 마태복음 - 요한복음
7. 사도행전 - 갈라디아서
8. 에베소서 - 요한계시록

四字聖經

1 창세기 - 욥기

사자성경



정종기 지음 | 508면 | 15,000원



Contents

APRIL · 2018



COVER STORY

커버스토리

기독교인 아랍 전문가

공요셉 박사를 만나다

8

칼럼

이슬람 근본주의,

살라피 운동과 한국의 이슬람 | 공요셉

15

ISSUE

발행인의 글

이슬람과 한국교회 | 김승욱

5

대표주관

종교 다원주의와 타종교 존중 | 손봉호

19

기획칼럼

이슬람교의 국내실태 | 김윤생

22

헌법개정 논의와 과격무슬림의 위협에 대한

합리적 제한의 필요성 | 고영일

25

이슬람을 경계하라 | 이만석

30

이슬람 여성,

금기 아무나 깨나? | 소윤정

38

이슬람권내의 무슬림출신 기독교인들! | 이모세

42

이슬람 지역의 선교사역 | 조은중

45

이슬람에 대한 책갈피 | 송인규

48



WORLD VIEW

2018년 4월호 | WORLDVIEW | 통권 214호

『월드뷰』는 우리 사회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소망하며 기독교학문연구에 뿌리를 두고 발행하는 기독교세계관 전문잡지입니다. 이 일에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월드뷰〉 구독신청 국민은행 387201-01-121691 세상바로보기 문의 02-718-8004

WORLD VIEW



BIBLE & WORLDVIEW

칼럼

버킷리스트 최충희	56
삶을 위한 성경 강해: 요한계시록(4) 이우제	60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께 속해있다 심재승	64

HUMOR

손봉호의 유머 모음

“물에 빠진 사람 구하는 법”	18
------------------	----

『월드뷰』는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여 이 땅의 크리스천에게 바른 안목을 제시합니다.

발행인 김승욱 | 편집간사 김정신 | 디자인 김정신 |
인쇄 상자사 | 제작 (주) 세상바로보기 | 전화 02-718-8004
주소 서울 용산구 이촌로 27길 5, 103호 (이촌동, 한강르네상스빌리지 A) 04374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삶과 학문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제 분야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정리하고 이를 확산시키며 이와 병행하여 실천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신앙과 학문의 공동체입니다.

월드뷰를 만드는 사람들

발행인	김승욱	중앙대 교수, 경제사학회 회장 역임, 미국 조지아대 경제사 박사
대표주간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서울대 명예교수,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암스테르담자유대 철학박사
편집위원	김정효	이화여대 교수, 한국초등교육학회 학회장,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박사
	김철홍	장신대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플러신학교 신약학 박사
	배성민	강동대 교수, 고려대 체육교육과 졸업, 고려대 스포츠심리학 박사
	송인규	한국교회탐구센터 소장, 전 합동신학대학원 교수, 시라큐스대 철학박사
	이경원	SICA(서울국제크리스천아카데미학원)원장, 하늘소리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이상규	고신대 교수, 개혁신학회 회장, unio cum christo의 편집위원
	이승구	합신대 교수, 국제신학대학원대 부총장 역임, 세인트앤드류대 신학박사
	이우제	백석대학교 교수, 총신대학교M.Div.,미국 칼빈 신학대학원(Th.M.),남아공 스텔렌보스 대학교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한정석	전 KBS PD,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편집간사	김정신	월드뷰 편집간사



김승욱



손봉호



곽우정



김정효



김철홍



배성민



송인규



이경원



이상규



이승구



이우제



조영길



한정석



김정신

자문위원	강진구 (고신대) 김대인 (이화여대) 김의원 (총신대) 김지원 (백석대) 박동열 (서울대) 박상은 (안양생병원) 박영주 (은혜샘물학교) 양승훈 (VIEW) 이인용 (삼성전자) 이재희 (가천대) 정희영 (총신대) 조성돈 (실천신대) 조성표(경북대) 최용준 (한동대)
------	---

이슬람과 한국 교회



김승욱 (발행인)

김승욱 본지 발행인.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제학부 교수이다.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Ph. D.(경제사)를 받고, 경제사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이번 호는 이슬람을 특집으로 다루었습니다.

이달의 표지인물도 이슬람 전문가인 공요셉(예명)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는 수단의 옴두르만 대학교에서 꾸란의 음성학적 연구로 박사를 받았으며, 한국학 중앙연구원에서 파견을 받아 요르단 대학교에서 교수를 역임하면서 한국을 알리는 데 공헌을 하여 대통령 표창도 받았습니다. 학문적으로도 기독교인의 아랍어와 무슬림의 아랍어 간의 차이를 연구하며, 아랍 신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꾸란과 아랍어 성경의 의미와 해석> 등 많은 이슬람 관련 서적을 집필했습니다. 그의 활동과 학문 세계를 소윤정(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교수가

인터뷰 했습니다. 이어 공요셉 박사의 칼럼 “이슬람 근본주의, 살라피 운동과 한국의 이슬람”을 통해 한국 사회가 무슬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를 얻습니다.

이슬람과 관련된 주제는 송인규 교수가 “이슬람에 대한 책갈피”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신학적 논쟁으로 무슬림이 믿는 “알라”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동등한 신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글은 손봉호 대표주간의 “종교 다원주의와 타 종교 존중”의 글을 통해서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이슬람 사원이 보이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전경.

둘째는 글로벌 시대에 한국에 들어온 무슬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입니다.

최근에 IS 등 과격 이슬람 단체들의 테러로 위협을 받고 있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한국에도 외국인 근로자나 난민신청 등을 통해서 많은 무슬림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이들을 어떻게 처우해야 하는가, 특히 한국 기독교의 입장에서 어떤 정책을 지지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을 선교대상으로 여기고 포용해야 한다는 시각과 경계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종교가 공존해야 하는 글로벌 시대에 외국인과 타 종교에 대한 관용과 배려를 어느 정도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한국 사회에 들어와있는 이슬람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해서 합동 측 이슬람 대책 위원장인 김윤생 목사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헌법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 그 가운데 포함된 외국인 난민과 외국인 망명권이 어떤 사회적 파장이 있을 것인지를 관하여 고영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예전에 이슬람 금융인 스쿠르법 수용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지금도 할랄 푸드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슬람을 경계하라>는 책을 저술한 이만석 목사는 이슬람을 왜 경계해야 하는가를 폭력성과 거짓을 허용하는 종교라는 시각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할랄 푸드를 허용할 경우 파급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해의 폭을 넓혀주었습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를 달구고 있는 “Me, Too” 운동을 보면서 이슬람의 여성인권 문제를 생각하지 않




히잡을 쓴 이슬람의 여성들.

을 수 없습니다. 소 윤정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교수는 조혼, 성폭행 면죄부로써의 결혼, 일부다처제, 시아파에서 행해지던 임시결혼 그리고 명예살인과 여성할례, 히잡 등과 관련된 이슬람의 여성인권 문제를 설명합니다.

셋째 주제는 해외 무슬림에 대한 선교입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슬람 선교문제는 첫째 주제와 민감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짧은 지면서 소개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슬람 국가 현지에서 무슬림을 대상으로 선교사역을 하는 두 분의 선교사의 글을 소개합니다. 이분들은 실명을 밝힐 수 없어 가명으로 소개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호 부터 미국 CRC(Christian Reformed Church) 교단에서 발행한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Our World Belongs to God)』를 연재

합니다. 이 문헌은 개혁주의적인 신앙을 현재의 사고와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하여 살 것인가를 다룬 문서로 한국 교회에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연재합니다. 이 문헌의 번역은 돌트칼리지(Dordt College)의 심재승(신학) 교수가 맡았습니다. 

『월드뷰』가 만난 이달의 인물

기독교인 아랍 전문가 공요셉 박사를 만나다

이달의 표지 인물로 공 요셉 교수님(전 요르단 대학교 교수)을 소개합니다. 그는 아랍 연맹의 '교육문화과학의 아랍기구'(Arab Organization for Education, Culture and Science)가 우리나라 교육부를 통해 선발한 장학생으로 카르툼 국제아랍어 교육대학원에서 '외국어로서의 아랍어 교육'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수단의 옴두르만 대학교에서 꾸란의 음성학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귀국 후 부산외대와 한국외대에서 9년간 아랍어와 중동 사 등을 강의했습니다. 한국학 중앙 연구원에서 요르단대학교로 파견되어 2002년부터 한국어와 문화를 가르치며 한국어 교양과정을 한국어 전공으로 승격시키고, 아르묵 대학교에 한국어 교양 과정 등을 설치하는데 이바지하여 대통령 표창도 받았습니다. 지금은 중동국가들을 순회하면서 중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 요셉 교수님은 기독교인의 아랍어와 무슬림의 아랍어 간의 차이를 연구하며, 아랍 신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번 호에 이슬람을 다루면서 공 일주 박사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현재 공 일주 교수는 해외에 거주하기 때문에 소 윤정(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교수의 도움을 받아 지상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편집자).

인터뷰 소윤정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수)

한세대학교 신학과 졸업후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에서 AIGS M. Div . (영어과정)를 마치고 선교학 전공으로 Th.M(2003년)과 Ph.D.(2008년) 학위를 받았다. 서울기독교대학교 선교학 겸임교수를 역임하고 2005년부터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와 한세대학교, 세계사이버대학교와 백석대학교에서 외래교수로 강의한바 있으며, 현재 아세아연합신학대학 선교대학원 아랍선교학을 전담하면서 아랍문화연구원을 맡아 사역하고 있다.

소 윤정 : 공 요셉 교수님은 자타가 공인하는 이슬람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슬람권에서 교육에 투신하게 되셨는지 우리 독자를 위해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공 요셉 : 저는 1977년에 처음 창서 초등학교에서 교편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그때 가르쳤던 학생들 10여명이 35여년이 지난 뒤에 저를 찾아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정말로 행복한 재회를

하면서 교육계에 몸담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의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이슬람과 관련하여서는 제가 신답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는 동안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어과에 편입하여 아랍어를 전공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대학원 재학 중에 아랍 연맹이 우리나라 교육부를 통하여 장학금을 주었는데 그 시험에 합격하여 수단에 가서 외국어로서의 아랍어 교육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이어서 옴두르만 대학교 문과 대학원에서 꾸란



공요셉 교수

의 음성학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대학 강단에서 9년간 아랍어와 중동사 등을 강의하다가 1998년 1월 요르단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요르단의 복음주의 신학교가 저를 교수로 초청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학교에서 아랍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배우다가 2002년 요르단 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어 6년간 아랍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요르단 대학교에 한국어 학사학위 과정을 설치하였는데 해외 한국학 발전에 힘쓴 공로로 한국 정부로부터 대통령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소 윤정 : 네. 저도 신문에서 공 박사님이 한글날 대통령상을 받으셨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나는데요, 요르단 대학에서 어떻게 한국어 학사학위 과정을 만드시고 운영하셨으며, 그리고 어떻게 대통령상을 받게 되셨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는지, 그리고 요르단에서 한국에 대한 관

심이 어느 정도인지 소개해 주십시오.

공 요셉 : 저는 외국어로서 아랍어 교육에 대한 석사학위를 받았고 초등학교 교사 경력과 이화여자 대학교 언어 교육원에서 5년간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으로 요르단 대학교 한국어 방문 교수로 선발되었어요. 요르단 대학교 문과대학의 현대언어학과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던 중 요르단에 부임한 신 연성 대사에게 한국어과를 만드는데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고, 대사관과 LG 전자 요르단 지사장의 도움으로 요르단 대학교에 한국학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세 사람의 작품이라고 신문에도 나왔어요. 물론 요르단 대학교 측에서는 라자이 알칸지 교수가 적극 협조해 주었어요. 저의 한국어 수업에 등록하는 학생들이 세 자리 수로 늘어난 것도 대학 측이 배려한 것이지요. 그러나 학장이 바뀌면서 아흐마드 마즈두베 교수가 저의 교수직 연장을 안 해줘

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소 윤정 : 기독교인의 아랍어와 무슬림의 아랍어 간의 차이를 연구하셨다고 했는데, 같은 언어가 종교 간의 차이가 있다는 말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종교가 다르면 같은 단어라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단어의 의미가 다른가요?

공 요셉 : 아랍 기독교 공동체가 이슬람 국가 통치 하에 1400년 이상 지속되면서 이슬람의 영향을 받았지만 특정 부분은 기독교 고유의 색채가 남아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랍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은혜’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이해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무슬림들이 사용하는 은혜는 ‘알라가 하사한 재물과 양식 또는 기쁨과 즐거움, 자비(유익과 제물과 행복과 선)’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성경적 어휘나 신학적 어휘는 이슬람의 용어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슬림이 아랍어로 쓰인 성경책이나 기독교 신학 책을 읽으면 금방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 윤정 : 중동인의 눈으로 본 아랍 신학에 대하여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아랍 교회가 갖는 신학적인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공 요셉 : 지금 아랍 교회의 주요 신학적 개념은 성령론 - 종말론 - 이스라엘 등이지요. 이슬람에는 성령의 개념이 없어서 아랍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 중에 성령의 개념을 정확히 모르는 성도가 있기 때문이고요. 종말론은 이스라엘이 어떤 역할을 종말에 하느냐가 주요 관심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성경의 이

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 윤정 : 많은 책을 저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에 특별히 <꾸란과 아랍어 성경의 의미와 해석>이라는 책을 집필하셨는데, 이 책에서 언어학의 의미론과 성경의 해석학을 접목시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독자들을 위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비전공자들도 이해할 수 있게 좀 쉽게 설명해 주시지요.

공 요셉 : 국내 대학의 교수들은 연구비를 주는 학술 논문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데 연구 논문은 자신만의 학문 세계를 정립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술적인 책을 쓰다보면 자신의 학문을 통으로 보거나 분석하고 융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언어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국내 아랍어 학계가 의미론에 취약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아랍어 문법의 의미에 관한 연구를 하다가 문법의 의미 연구로는 꾸란을 해석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꾸란의 번역은 의미 연구와 해석의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의미와 해석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무슬림들은 아랍어 낱말의 외형과 의미 문제에 있어서 한 낱말이 여러 의미들을 가지게 되는데, 문제는 여러 의미를 내포하는 그 낱말(문자) 자체가 신이 내려준 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낱말이 많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보다 낱말의 외형에만 치우쳐 극도의 문자적인 (letterism) 텍스트주의자가 생겨났는데 이러한 텍스트주의자들은 오늘날의 살라피를 양산했습니다. 살라피는 낱말의 의미들이 여럿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중시하지 않았 습니다. 그래서 낱말의 표면적 의미에 머무르고 말았

고 이 살라피를 서구에서는 근본주의(원리주의)라고 부르기도 했지요.

결국 IS 이슬람 국가 조직이 꾸란과 하디스를 잘못 해석한 것이 극단과 테러의 한 가지 원인이 되었습니다. 국내 무슬림들이 극단과 테러의 사상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꾸란의 해석에서 마자즈(원뜻이 아닌 다른 의미로 사용됨)를 허용하고 또 법 해석에서는 이성을 이용하는 이즈티하드(텍스트에서 법적 판결을 찾는 것)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 윤정 :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무슬림들의 영적 세계까지 다루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슬람 세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 요셉 : 소 교수님이 이 분야에 연구와 경험이 많으신데 실제로 무슬림들은 성경의 예수와 상당히 다른 '이싸'라는 분을 예언자로 믿습니다. 서구에서는 꾸란의 이싸를 Jesus라고 번역하다보니 서구 학자들이 성경과 다른 점을 부각시키기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꾸란 4:171절에 나오는 '칼리마'와 '루호'를 각각 word 와 spirit로 번역하였지요. 그런데 제가 순니 파와 시아 파, 살라피 파와 아쉬아리 파, 수피파와 이바디 파 등 여러 종파의 주석을 보니 '칼리마'와 '루호'가 여러 의미로 주석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요한복음의 로고스(word)는 하나님입니다. 꾸란의 칼리마는 영어로 word 라고 번역되지만 아랍어로 된 모든 꾸란 주석서에서는 성육신한 로고스가 아닙니다. 그리고 꾸란의 루호가 생명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성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무슬림 주석가들이 루호를 성령으로 기록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로 번역된 꾸란의 의미 번역(성꾸란)은 칼리마를 말씀이라고 번역하니 기독교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잘못 동일시한 것이지요. 이것은 국내 학자들이 아랍어로 된 꾸란 주석과 꾸란 본문을 읽어봐야 알 수 있는데 그러려면 국내에서 꾸란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대학 강좌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슬람과 아랍에 관심이 있는 학자들과 공직자, 언론인들이 계속 이슬람과 꾸란을 잘못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므로 복음을 무슬림에게 전하는 사람은 성경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성경과 그리스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 윤정 : 중동의 한국학 발전을 위해서 「중동 아프리카의 한국학 저널」(Journal of Korean Studies in the Middle East & Africa)을 창간하여 아랍어로 책을 발간하여 아랍의 20개 국가에 배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저널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언제부터, 어떻게 발간하게 되었는지요? 운영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떤 보람이 있으셨는지요?

공 요셉 : 제가 요르단 대학교 방문 교수가 된 후에 아랍 학계에 게재 된 저의 논문들을 학교에 제출하여 정식으로 조교수가 되었어요.

그때 한국학 중앙 연구원에서 해외 한국학 연구를 위한 지원이 있어서 연구비 신청을 했는데 첫 해에는 Towards promoting more cooperation with

KOREA (2006)라는 이름으로 책을 냈어요. 그 다음 해에 중동의 한국학 저널을 창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뒤에 요르단 대학교 출판부에서 아랍어로 배우는 한국어 (1)과 (2)를 출간하였고 한국어 발음이란 책을 아랍어로 출간 했는데 이 책들을 아랍의 20여개 국가에 각각 두 대학교를 선정하여 도서관으로 보냈어요. 이런 일을 계속했다라면 한국을 아랍 세계에 더 많이 알릴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도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더 많은 한국어, 한국사, 한국 문화 책들을 아랍어로 저술하거나 번역해야 했는데 아쉽지요. 요르단에서는 한 요르단 친선협회에서 아랍어로 연설도 하고 요르단의 지성들이 모이는 '아랍 사상 포럼'에 초청되어 아랍어로 강연도 했어요. 아랍어를 배워서 아랍인들에게 한국을 소개하는 강의와 저술을 했던 것이지요.

소 윤정 : 2014년에는 중동 아프리카 연구소의 소장을 맡아 「아랍 이슬람 세계 저널」(Journal of Arab and Islamic world Studies)을 창간하셨지요? 지금도 이 저널이 잘 발행되고 있는지요?

공 요셉 : 요르단 대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한국학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개인적으로는 아랍어가 많이 숙달되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위해 걸프 지역을 방문했을 때 건설교통부 장관 통역을 하기도 했어요. 요르단을 떠나고 난 뒤에는 여러 아랍 국가를 다닐 기회가 생겼는데 나라마다 아랍인들의 말이 조금씩 다르고 그들이 믿는 이슬람도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한



아랍사상포럼(알문타다)표지



한국어발음(아랍어로 출판)



알문타다에 실린 강연원과 사진

마디로 다양한 무슬림들이 여러 이슬람 성향을 가진 것이지요. 요르단 대학교 재직 중에 시작한 이슬람과 대학원 때 공부한 꾸란을 더 깊이 연구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랍 국가들을 방문하면 그 지역의 연구자나 대학 교수들을 만나서 아랍 세계와 이슬람을 연구하게 된 거예요. 이슬람 연구에서 아랍어를 모르면 다른 학자가 연구한 것을 인용해야 하지만 아랍어를 알면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할 수 있어요. 가령, 무슬림들은 꾸란이 아랍어로 만 기록되어 있다고 하지만 서구 학자들은 그 속에 아람어 Aramaic가 들어 있다고 했어요. 이 말이 사실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제가 미국 덴버에 가서 아람어 수업을 듣고 이라크인에게서 아랍어를 배웠어요. 아랍인 학자와 서구 학자와 한국인 학자 셋이 어떤 주제를 연구하면 우리가 굉장한 학문적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창간한 저널이 ‘아랍과 이슬람 세계’이고 매년 발간되고 있어요.

소 윤정: 최근에 한국 사회에 취업이나 난민 신청 등으로 많은 무슬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무슬림에 대한 경계론이 있는가하면, 관용론도 있습니다. 공 박사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 요셉: 우리나라가 어떤 정책을 세울 때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실제로 이슬람에 대한 정부와 국민들의 인식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슬람 문제를 보는 우리의 시각을 먼저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시각을 가진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이슬람 문제를 보는 우리의 시각을 먼저 바꾸어야 합니다.

그 예로 사드 문제로 관광객을 중국이 안 보내니까 관광청은 무슬림 관광객을 잡자고 했어요. 이것을 보면 이슬람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정책이 큰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최근 언론에서는 16만 명의 무슬림이 국내에 있다고 하는데 국내 거주하는 무슬림들의 통계를 정부가 정확히 모릅니다. 정부와 교회는 국내 무슬림의 실태 조사를 먼저 해야 합니다. 적어도 과격 성향의 무슬림과 온건 성향의 무슬림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는 국내 모스크의 이맘들을 찾아가 안보와 사회에 대한 강좌를 열어야 합니다. 또한 이슬람을 연구하는 무슬림과 비 무슬림 학자들이 모여서 중,고등학교 교과서와 참고서의 이슬람에 대한 편향된 서술을 재심의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슬람에 대한 적절한 관점과 태도를 갖게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작년 말 이라크에서 IS가 붕괴되었다고 하지만 들려오는 소식은 아직도 불씨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극단적인 사상에 물든 청소년들과 함께 IS대원들이 남기고 간 자녀들과 부인들이 문제라고 합니다. 지난 몇 년 전부터 유럽 각국은 입국자들을 면밀히 조사하는데 벨기에는 1년에 100여명의 극단적인 무슬림들이 입국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관


심을 가져야 할 것은 어떤 부류의 무슬림이 극단적인 사상을 갖는지에 대한 새로운 강좌도 필요하지만 국내에 거주하는 무슬림 청소년 7000여명이 우리 사회에서 주변인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빠른 시일 내에 전도와 양육의 매뉴얼이 모든 교회에 배포되어야 합니다. 이슬람 연구 기관에서는 교회와의 관계, 이슬람 커뮤니티와의 관계, 이슬람 센터와 이슬람 자선 단체와의 관계, 정부 기관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이슬람에 대한 경계론과 관용론을 두고 너무 탁상공론이 많았습니다. 국가의 안전과 치안을 어렵게 하는 극단적인 무슬림들의 입국을 차단하는 일은 정부가 해야 하고 교회는 그들의 영혼 구원과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도와야 합니다.

소 윤정 : 결론적으로 한국 교회가 이슬람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요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 요셉 : 현지인과 의사소통이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중반까지 이슬람권으로 나간 사역자는 아랍어와 이슬람을 잘 모르고 나간 한인 디아스포라의 목회자였습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에 나가있는 대부분의 한인 디아스포라 목회자는 현지어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국내 기독교 신문이나 기독교 잡지에 실린 글을 보면 그분들이 이슬람권 선교의 최선봉장이 되어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한인 디아스포라는 기도와 물질 후원이 전부입니다. 한인 목회자가 이슬람권 선교의 전략을 소개할 수 있지만 직접 사역은 아닙니다.

우선 소정의 언어교육을 받도록 하고 현지인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현지 언어에 능통해야 합니다. 초기 사역을 천천히 진행 하더라도 언어는 반드시 숙달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아랍어는 해당 국가의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는 대중 아랍어(colloquial Arabic) 이외에 현대 표준 아랍어 그리고 꾸란의 아랍어가 있고 아랍 무슬림의 아랍어와 아랍 기독교인의 아랍어가 있습니다. 이런 언어들을 이해하고 습득하기 위해 평생 노력해야 합니다. 1998년 요르단에 갔을 때 미국인 교수가 아랍어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2016년에 그분이 한국인 사역자들에게 아랍어를 어느 정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인들 중 아랍어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지만 아직도 상당수는 그 수준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역의 성장입니다. 이슬람권 컨텍스트에서 교회의 증거가 확대되고 이슬람의 압력 하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를 돕고 무슬림에게 효과적인 사역을 위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현장 상황에 맞는 자원들을 실제적인 필요에 맞게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앞의 두 가지 보다 우선 할 것은 자신의 삶의 성숙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이며 잘 마치는 사역은 그가 떠난 뒤에도 그가 좋은 그리스도인이었음을 증거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 근본주의, 살라피 운동과 한국의 이슬람

1990년대 한국에서는 ‘이슬람 원리주의’라는 말과 ‘이슬람 근본주의’라는 말을 혼용하고 있었다. 서구에서는 이슬람 근본주의(Islamic Fundamentalism)라는 말을 널리 사용해 왔다. 아랍인들은 “근본주의(fundamentalism)”라는 말은 1920년 미국의 개신교에서 사용한 말이라고 하면서 이슬람에서 이 단어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오늘날 아랍 이슬람 국가에서는 근본주의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고 그 현상을 가리키는 말로서 이슬람주의(Islamism)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한다.

현대 아랍어 사전에서는 fundamentalist(근본주의자, 원리주의자)라는 말은 아랍어로는 ‘무타잠미트(mutazammit)’와 유사하다고 했다. 무타잠미트는 “종교나 견해나 행동에서 과장되게 과격한 자”¹를 가리킨다. 그동안 학계에서 원리주의자를 아랍어로 ‘우썰리야’라고 옮겼다. 아랍 무슬림들은 원리(우썰)들을 지키는 자들이므로 이슬람의 원리들을 지키는 자라는 뜻에서 무슬림들은 원리주의자²라고도 한다. 그렇다면 아랍어 ‘우썰리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근본주의(원리주의)와 그 개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아랍인 무슬림들은 사회와 정치 생활을 인도해 주는 이데올로기를 ‘이슬라미(이슬람주의)’라고 한다. 무슬림 형제단과 살라피 운동이 이슬람주의에 속한

다. 이슬람주의는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정치, 경제, 사회를 인도해야 한다는 정치적 운동이다. 현대 이슬람주의는 대중적 정치운동으로 발전하였는데 그것이 아랍 혁명 이후 새로운 정치질서 속에서 각 아랍 국가에서 이슬람주의자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³ 이슬람주의는 이슬람 종교 안에서 종파 간의 충돌뿐만 아니라 이념과 신앙 간의 갈등으로 확대되었다. 이슬람주의 무슬림들은 아랍 사회가 이미 세속주의 사회로 변질되었다고 보고 국가를 장악하여 이슬람율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랍의 봄 이후에 북아프리카에서 이슬람주의 물결(tayyar islami)이 확산되었다. 대표적으로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이슬람주의자들이 한 때 정권을 잡았다.

아랍 혁명 전에는 일부 무슬림들이 국가와 종교를 분리하여 ‘종교는 알라(Allah)에게 국가는 모두에게’라고 했으나 아랍 혁명 이후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한 때 이슬람주의자들이 정치 전면에 등장하였으나 지금은 그들이 수면 아래로 내려가 몸을 사리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건국초기부터 살라피 사상을 가진 무함마드 본 압둘 와합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였다. 그의 이름을 따서 ‘와하비즘’이라고 한다. 와하비 무슬림들은 수피 무슬림과 시아 무슬

1. Ahmad Mukhtar Umar, Mu'jam al-lughah al-Arabiyyah al-Mu'asirah, Part 2, Cairo: Alam al-kutub, 2008, 994.
2. Manbar al-Islam, 77권 8호, 이집트 종교성, 2018, 3월, 56.

3. 공일주, 『아랍의 종교』, 서울: 세창출판사, 2013, 5



람 그리고 기독교인과 유대교인을 박해했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사우디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이란 사우디와 경쟁상대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란은 이슬람 국가의 상위 5개 군사 강국에 속하지 못한다고 했고 사우디 교육제도에서 무슬림 형제단의 사상을 발본색원하겠다고 했다.⁴ 순니의 종주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시아의 종주국 이란을 정적으로 대치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전 세계로 살라피 사상을 수출해 왔는데 한국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유학하거나 매년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순례를 간 무슬림을 통하여 살라피가 전해지고 있다.

살라피는 언어적으로 선조(살라프)의 전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다.⁵ 이슬람역사에서 살라피들은 여러 사상과 학파와 학설들이 다양하게 그리고 서로 차별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지금도 아랍과 이슬람 국가의 살라피들이 단 한 가지 운동에 속한 것이 아니다. 살라피에 대한 정의 중에서 가장 지배적

인 정의는 텍스트를 우선한다는 것이고 자주 견해와 유추보다는 텍스트의 자히르(표면적 의미)를 우선시킨다.⁶

살라피 태동기를 대표하는 무슬림은 아부 압둘라 아흐마드 이븐 한발(780-855)이다. 살라피의 발전기에 해당하는 무슬림은 이븐 타이미야(1261-1328), 이븐 까임 알자우지야 (1292-1350) 등이고 이들은 ‘알마수르(전해 내려 오는 것)’에 일부 이성적 관점의 요인을 포함시킨 무슬림들이다. 물론 이들은 텍스트와 알마수르의 내용을 우선한다. 현대 시기에 살라피 성향을 대표하는 것은 텍스트주의 성향이다. 무함마드 빈 압둘 와합(1702-1792)이 대표적인 인물이고 그가 와하비 운동을 이끌었다. 우리가 잘 아는 9.11 테러에 와하비들이 여럿 포함되어 있었다.

살라피 학설이 발전하는데 공헌한 신학자들 중에는 알가잘리(1111년)와 이븐 타이미야(1324년)가 포함되어 있다. 이븐 타이미야를 살라피 연구에서 많은 학자들이 인용하고 있다. 현재 한남동 이슬람 모스크의 이맘인 이주화 역시 “본 논문은 꾸란과 예언자의 전통에 기초한 이븐 타이미야의 유일신 사상에 관하여 연구하며 그가 이룬 이슬람 신학의 사상적 체계와 가치를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이를 통해 순니 이슬람 신학의 방향을 올바르게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⁷ 고 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이븐 타이미야가 순니 이슬람의 정통성을 확립해 주는 학자로 본 것이다. 그가 유학한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 이슬람 대학교는 살

4. Asharq al-Awsat, 14357호(2018년 3월 20일), 2면.

5. 공일주, 『이슬람과 IS』 서울: CLC, 2015 참조.

6. al-Mawsu'ah al-islamiyyah al-Ammah, Cairo: Wizarah al-Awqaf, 2015, 765.

7. 이주화, 『이븐 타이미야의 唯一神觀에 대한 연구』, 서울: 명지대학교, 2005, 2


라피 사상을 가르치는 대표적인 대학교였다. 메디나 이슬람대학교의 홈페이지에 나오는 학교 비전을 아랍어로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종교와 세상의 문제를 꾸란, 순나 그리고 살라프 썰리흐(선조)의 실천에 근거한다.”고 쓰여 있다.⁸

따라서 한국인 무슬림들이 살라피 사상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았는지 학술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주화의 석사학위 논문을 지도한 최영길 교수 역시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 이슬람 대학교에서 수학했다. 그의 책 『성꾸란』(또는 의미의 한국어 번역, 이슬람력 1417년)의 두 번째 페이지에 아랍어로 “파흐드 븐 압둘 아지즈 알사우드 왕이 기증한다.”라고 쓴 것을 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재정 지원으로 이 책이 출간되었다.

무슬림형제단과 살라피 간의 관계는 상호반발, 삼투작용, 공생 등 세 패턴을 가졌다. 이슬람국가(IS) 조직의 이데올로기는 와하비에서 많이 끌어왔다. 살라피가 꾸란 구절을 극도의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것처럼 IS도 극도의 문자적인 해석을 했다. 최근 몇 십년간 와하비가 주류 순니 무슬림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⁹

살라피들은 반기독교, 반유대교적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극단적인 사상과 싸우겠다고 했다.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은 “극단적인 사상과 싸우는 것들 중에는 무슬림 형제단의 테러 조직과 싸우는 것인데 이런 사상에 빠져 있거나 그런 사상에 동조하는 자를 발본색원한다는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1960년대와

1970년대 이집트에서 망명한 무슬림형제단이 공교육과 사우디 대학교에서 가르쳤는데 일부 교사나 장학관 그리고 교육부 관련자들이 무슬림 형제단의 영향을 받았고 일부는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 참여했다”¹⁰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슬람 문화 행사, 대학 교육, 이슬람국가와 관련된 정부 기관이나 기업, 국내에 상주하는 이슬람 국가의 대사관, 국내의 모스크와 이슬람 센터 등을 통하여 이슬람관련 지식이 전해지고 있다. IS가 2017년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패퇴를 시작하면서 아시아 등 세계 여러 곳으로 스며들고 있다. 세계 각국은 자국민들 중 IS 조직의 활동에 가담한 자들을 8-10년형을 언도하고 있고 이슬람 국가들은 이라크와 시리아에 남아 있는 IS 대원의 자녀나 가족들을 송환하는 업무를 협의하고 있다. 한국도 IS 조직원들의 입국을 사전 차단해야 하지만 이슬람학자들은 더 위험한 것은 극단적이고 과격한 사상이 청소년들에게 주입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아랍 이슬람 국가들처럼 국내에서 이슬람을 전하는 이맘이나 종교지도자들이 “중도적인 이슬람(와사피야)과 온건한 무슬림”을 지향하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 

8. <http://iu.edu.sa/Page/index/20234> 2018년 3월 9일 접속.

9. Patrick Cockburn, *The Rise of Islamic State*, London: Verso, 2015, 35.

10. Asharq al-Awsat, 14359호, 2018년 3월 22일 3면

WORLDVIEW

COLUMN



손봉호의 유머 _ “물에 빠진 사람 구하는법”

이맘 하나가 길가 호수에 빠져서 “살려 달라”고 고함을 치고 있었다.
사람들이 독에 서서 “잡아 올릴 테니 손을 내놓으세요!” 하고 외쳤다.
그러나 그는 손을 내밀지 않고 살려달라고 계속 고함만 질렀다.
소식을 듣고 달려 온 친구 하나가 가까이 가서 자기 손을 내밀면서
“자. 내 손을 잡아!” 하고 소리쳤다. 이맘은 즉시 그 손을 덥석 잡고 물에서 올라왔다.

어리둥절해 하는 군중에게 그 친구가 설명했다.
“이 녀석은 욕심이 많아 무엇이든 ‘내놓으라’ 하면 죽어도 내놓지 않아요.
그러나 ‘잡아’ 하면 무엇이든 잡습니다.”

* 칼럼의 내용은 필진의 개인적 견해이며, 월드뷰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종교 다원주의와 타종교 존중



손봉호 교수 (대표주간)

본지 대표주간,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이다.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기아대책기구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다.

다원주의가 일반화되고 있다. 돈과 쾌락추구, 자연과학과 과학기술, 인권 존중 등에는 세계가 하나가 되고 있지만 이념, 철학, 예술, 종교, 윤리 등 나머지 분야는 모두 다원적이고 상대적이 되고 있다. 정설, 표준, 기본, 원칙이 무시되고 대부분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한다. 종교에도 다원주의가 유행이다.

이런 풍조 속에서 가장 난처한 입장에 서게 된 것이 전통적인 신조에 충실한 기독교다. “천하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 (해 4:12)을 믿기 때문이다. 다원주의 시대에 이런 신앙이 어떻게 버티겠는가?

우선 종교다원주의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

나는 이 세상에 다양한 종교가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문제꺼리가 될 수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화여대 철학교 정대현 명예교수가 표현한 명제, “모든 종교는 구원을 받는다”는 종교다원주의다. 영국 신학자 히크스 (John Hicks)와 맥커리 (John Macquarrie), 전 감신대 변선환 교수 등이 견지하는 입장이다. 흔히 드는 예가 산의 정상 (頂上)은 하나인데 그곳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이다. 산꼭대기에 오르기 위한 길이 꼭 하나일 필요가 없듯이 구원을 받기 위한 종교도 하나에 국한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히크스는 기독교는 하나님, 이슬람은 알라를 믿고 예배하지만 그들은 모두 “참 존재” (the Real) 혹은 “궁극적인 존재” (the Ultimate)를 의지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세계의 고

등종교들은 하나의 궁극적이며 신비한 신적인 실체에 대해 제각기의 서로 다른 개념과 체험과 반응을 나타내는 것” 이므로 종교들이 상호 배타적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19세기 이란 출신 압둘 바하 (Abdu'l-Baha')가 창시한 바하이교의 종교연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그 주장은 따져보면 추상 명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마치 김양과 이양은 다 여자이기 때문에 그 어느 여인과 결혼해도 큰 차이가 없다는 것과 비슷하다. 실제의 남자는 김양 혹은 이양과 결혼하지 “여자”와 결혼하지 않는다. 기독교인이 이해하는 “하나님”과 이슬람이 이해하는 “알라”는 둘 다 “절대자” (the Absolute) 혹은 힉스가 말하는 “참된 자” (the Real)일 수 있다. 또 한 기독교가 바라보는 천국과 불교가 염원하는 열반은 둘 다 “구원”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다르다. 1982년에 변선환 교수가 “익명의 크리스천”, 혹은 “익명의 기독교”란 표현을 사용했을 때 보수적인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불교인들로부터도 심한 비난을 받았다. 불교인들도 익명의 기독교인이란 것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사실 기독교인이 예수 그리스도 외 “다른 이름으로”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여 불교인이 화를 낼 이유가 전혀 없다. 불교인들은 아예 기독교가 말하는 그런 구원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종교다원주의와 관계해서 종교인, 특히 유일신을 믿는 기독교나 이슬람이 당면하는 실제적인 난제는 “포교”의 문제다. 이슬람과 기독교는 포교를 매우 중요한 종교적 임무로 수행하고 있고, 그 때

문에 기독교는 가끔 독선적이고 제국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심지어 기독교 신학자들 가운데도 전도를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나 그런 자제는 두 가지 문제를 함축한다. 하나는 자신의 종교를 상대화하므로 종교적 확신이 할 수 있는 공헌을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종교적 광신은 경계해야지만 건강하고 확실한 신앙으로 약자 돌봄, 절제, 근면, 희생, 평화증진 같이 사회를 위해서 직접 혹은 간접으로 할 수 있는 긍정적인 공헌들은 엄청나다. 과거 공산주의 이념으로 종교를 철저히 탄압했던 사회와 종교 자유를 보장했던 사회를 지금 비교해 보면 종교의 상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나아가서 포교를 자제하는 것은 삶의 목적과 가치와 관계해서 중대한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어떤 특정한 종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은 다음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그런 정보에 대한 접근을 아예 처음부터 차단하는 것보다 오히려 개인의 결정권을 더 존중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그러므로 어떤 형태의 것이든 “강압적”인 방법으로 개종을 요구하지 않은 한, 그리고 다른 종교나 이념을 가진 사람도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한,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솔직하고 겸손하게 표현하고 수용을 권유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전도에 거부감을 가졌던 사람들 중에도 전도를 받아 개종한 후 자신에게 전도한 사람에게 오히려 매우 감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른 종교에 대한 존중은 그 종교의 가르침에 동의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동의하면 그 종교의 신봉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누구든지 종교를 선택할 권리가 있음을 존중하고 그 종교의 가르침도 자신의 종교와 동일한 권리와 자격으로 주장되고 포교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실로서의 종교다원주의가 함축하는 것이다.

물론 어떤 종교의 추종자도 자신의 종교를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이라고 주장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공적으로 다른 종교를 비판할 권리는 없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믿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객관적”인 제 3의 기준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종교상대주의는 불가피하다.

다만 우리는 한 종교의 가르침 가운데 보편적으

로 수용되는 규범에 배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할 권리가 있다. 예를 들어 테러, 살인, 인종차별, 여성이나 어린이 인권 무시, 계층차별, 자연환경 파괴 같이 인류가 존중하고 존중해야 하는 규범에 어긋났을 때는 마땅히 비판하고 견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부분만 비판할 뿐 그 종교 자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

그 모든 것보다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기독교가 사용해야 할 더 좋은 전략은 역시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 희생, 봉사, 검소, 겸손에 철저히 충실한 것이다. 그것은 동시에 전도의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이슬람교의 국내실태



김윤생 (한국이슬람대책협의회대표, 목사)

부산대학교를 졸업하고 총신대 일반대학원을 수료(실천신학 Th.M. eq)하였다. 현재는 한국이슬람대책협의회 공동대표, 그리고 한장총이슬람대책위원회와 예장합동이슬람대책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섬기면서 체계적인 이슬람교육을 위한 각종 교재개발과 강의사역에 집중하고 있으며 은혜교회를 설립하여 국내외국인사역(미안파)을 감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무슬림이 들어온 것은 고려 중엽부터라고 하나 특별히 종교활동을 했다는 기록은 없고, 6.25 전쟁시 유엔군 일원으로 참전한 터키군에 의해 종교로서 이슬람교가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박정희 정부 시절 중동 붐에 편승하여 이태원에 이슬람 중앙사원이 건립되었고 경제발전과

더불어 동남아, 중앙아시아 이슬람국가 출신 노동자들의 입국으로 국내 무슬림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말 현재 이슬람협력기구(OIC) 56개국 및 시리아 출신 외국인 무슬림 17만 5,000명과 내국인 무슬림 3만 5,000명 등 도합 21만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출처: 법무부, 한국이슬람중앙회)

구 분	08년	09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2월말
OIC국민체인원 (불체자포함)	89,504	86,764	109,220	116,398	128,698	147,162	156,273	174,809
불법체류인원	31,639	25,714	23,070	22,589	23,653	23,876	-	-
불법체류율	35.3	26.9	21	19.4	18.4	16.2	-	-

(출처: 법무부, 한국이슬람중앙회)

2014년 외국인 무슬림들의 불법 체류율(16.2%)은 일반 외국인 불법 체류율(11.6%)에 비해 월등히 높아 이들의 IS등 국외 이슬람 테러단체와 연계 및 범죄단체 결성 등은 사회 불안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외국인 무슬림은 노동자가 대다수이나 결혼을 통해 이주한 자와 유학생들도 상당수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국내에서 각종 특혜를 받으면서 이슬

람 전파와 확산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무슬림 남성의 한국 여성과의 결혼 전략은 심신지체 장애여성, 이혼녀, 극빈층 여성, 나이 많은 미혼녀, 독거여성, 미성년자 등 취약여성 집중 공략('13.3 JTBC), 끈질긴 구애를 통한 지속적 공략('13.2 MBC), 국적취득 후, 태도돌변 사례 빈발('06.1 월간조선)등으로 한국인 여성의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

이슬람권 국가 출신자와 한국인과의 결혼현황(결혼이민비자, F-6취득자)

〈남녀전체〉 16.12월말기준단위 명 %, 누계

구 분	우즈벡	파키	인니	키르기스	방글라	카자흐	기타	계
결 혼	1,566	800	545	368	316	164	739	4,499
비 율	35%	18%	12%	8%	7%	4%	16%	100%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유학생의 경우 국제화 지수를 높이기 위한 각 대학의 무분별한 유치경쟁으로 인해 학비면제는 물론 항공료, 생활비까지 받으면서 가족까지 초청하여 동거하고, 귀국이 임박해서는 잠적하거나 신학 대학원에 기독교로 위장 개종한 후 입학하여 적발된 사례도 부지기수이다.

무슬림 인구 증가와 더불어 전국에 이슬람 사원(15개소)과 센타(2개소), 기도처(무쌀라, 101

개소)도 급속히 증가하여 이슬람 예배시설이 전국에 124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잠정 집계(2017.12.31.현재)되고 있다. 최근에는 무슬림 관광객 유치와 유학생 편의 제공을 빌미로 공항, 호텔, 대학 기숙사 등에도 기도처가 계속 신설되는 등 '이슬람 공동체 기반이 구축'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슬람권 국가 출신 유학생연도별증가추이> (단위 : 명), 누계


구 분	08년	09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2월말
유학생수	2,124	2,914	3,841	4,360	5,106	6,105	7,206	8,551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러한 이슬람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전국의 주요 중소 산업단지 지역에는 무슬림 집단 거주지 (Getto)가 형성되고 있으며 경기도 안산 · 충남 아산지역, 경남 김해 · 창원지역을 중심으로 이슬람 벨트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 내 이슬람은 학계, 법조계, 금융계 등 각 분야의 다양한 활동에 힘입어 확산되고 있고, 이들의 중심에는 1970년대 중동 장학금으로 유학한 학자그룹이 있으며 수능 제2외국어 중에서 아랍어를 선택하는 비율이 60%(현재 70% 상회)를 넘는 파행적 교육상황도 초래되었다. 또한, 이명박 정부 시절 이슬람 금융인 스쿠크 도입이 시도되다 부작용을 우려한 교계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으

며,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무슬림의 음식인 할랄 (Halal) 산업 육성정책이 발표되었다가 기독교계의 반대와 반발을 초래한 적이 있는 등 이슬람교의 한국 침투 및 전파는 각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는 최근년간 벌어진 탈레반, 알카에다, IS 등 극단주의 테러가 이슬람의 폭력성에 기인한 것임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슬람 난민 등 무슬림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몸살을 앓고있는 유럽의 상황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무슬림은 따뜻하게 포용하되 이슬람에 대한 실체는 바로 알고 알리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다. 

순위	시군구지역	무슬림수
1	경기도 안산시	9,505
2	경기도 화성시	5,467
3	경상남도 김해시	4,756
4	경기도 김포시	3,163
5	충청남도 아산시	3,083
6	경상남도 창원시	2,914
7	경기도 평택시	2,708
8	경상남도 거제시	2,706
9	경기도 포천시	2,524
10	경상북도 경주시	2,451
11	충청남도 천안시	2,248
12	경기도 시흥시	2,206
13	경기도 안성시	1,870

헌법개정 논의와 과격무슬림의 위협에 대한 합리적 제한의 필요성



고영일 (자유와인권연구소소장, 변호사)

1992년 한국해양대학교, 1998년 성균관대학교 졸업하였고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합격
2014년 Northwestern University LLM을 마스터하여 2016년부터 현재까지 자유와 인
권연구소 소장을 역임하고 있다

1. 헌법개정논의에 언급되고 있는 문제들

최근 헌법개정 등과 관련하여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하여 인종, 언어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여 망명권을 신설하고 난민에 대하여 타국에 비하여 완화된 요건을 제시하며 영주권을 용이하게 부여하는 등의 다문화화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인권국가를 지향하려는 시도가 있다. 그러나 우리보다 먼저 다문화 정책을 추진하여 온 유럽연합의 경우 과격한 무슬림에 의한 테러로 목숨을 앓고 있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므로 현재 남북이 대치하는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이러한 헌법개정 방향이나 정책들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여부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 즉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무국적자

를 말한다. 이러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뉜다.

학설은 우리 헌법 제2장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은 국민의 권리만을 보장하는 것이지 외국인의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학설과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대립한다.

헌법재판소는 외국인에게 주체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기본권에 관하여는 불법체류에 따라 그 인정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재판청구권에 관하여는 기본권의 주체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입국의 자유에 대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헌법이 외국인에게 기본권의 주체성을 인정하



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성질상 인간의 권리인 경우(예컨대 생명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에는 외국인도 제한적으로 그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3.이미 인정됨으로 인하여 논란의 되고 있는 외국인의 권리 등

최근 헌법개정안의 논의에서는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언어와 인종에 따른 차별금지(자문위 헌법개정안 제14조 이하)와 망명권을 신설하고(자문위 개정안 24조) 난민에 대하여 타국에 비하여 완화된 요건을 제시하며 영주권을 용이하게 부여하는 등의 다문화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인권국가를 지향하려는 시도가 있

음(인권위 헌법개정안 제1조 이하)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난민보호법을 제정하여 난민협약보다 더 광범위하게 난민을 인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외국인들이 이미 난민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난민보호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

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하고,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하 "난민인정자"라 한다)이란 이 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또한 난민인정자 및 인도적 체류자 뿐만 아니라 난민인정을 신청한 자에 대한 강제송환을 받지 않고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난민인정을 받기 전에도 이렇게 신청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난민신청자에게 취업까지 허가할 수 있으며, 생계비, 주거시설의 지원, 의료지원, 교육의 보장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난민인정신청자까지 체류를 보장 받도록 하고 취업까지 허용하고 생계비, 주거시설, 의료, 교육까지 세금으로 충당케 하는 것은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들이 취하고 있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예컨대 유럽각국은 난민이 국경을 넘어 오는 경우 난민의 재산 중 일정부분 이상을 몰수하여 그 재원으로 난민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한다. 이들은 모두 대한민국보다 소득이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난민을 받아 들이되 난민의 재산을 몰수하여 난민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일방적 사증면제조치로 인하여 우리국민은 비자를 받아야 입국이 가능한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바레인, 이집트 국민에 대하여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으로 무사증입국을 허가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 국적을 가진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국적의 사람들이

무사증 입국을 통하여 입국한 뒤 난민신청을 할 경우 난민 인정절차가 확정되기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취업 및 지원을 받는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조치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인에 대하여도 결핵무료 치료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로 인하여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면 치료비용이 5000 만원에 이르는 악성결핵을 국립결핵병원에서 무료로 치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병·의원에서 결핵으로 진료받은 외국인 환자는 2007년 791명에서 2016년 2940 명으로 10년 사이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정부는 치료 목적 입국자를 걸러내기 위해 2016년 3월부터 중국이나 네팔 등 '결핵 고위험국' 19개국 입국자를 대상으로 "결핵균이 없다"는 진단서를 받고 있다. 문제는 91일 이상 체류 비자를 내줄 때만 이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단기 관광객으로 입국한 뒤 국립 결핵병원에 입원하면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더욱이 허가된 체류 기간이 지나도 결핵이 완치되기 전에 이들을 강제 추방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허점을 이용하여 2016년 외국인 2,940명이 건보료를 내지 않으면서 공짜결핵 치료를 받으면서 건보료를 소진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납입한 건보료를 외국인이 누리는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이다.

4.과격 무슬림의 입국방지 등 외국인 권리 제한 강화의 필요성

유럽은 과격 무슬림에 의한 테러로 몸살을 앓아 왔다. 2017. 8.17. 바로셀로나에서도 차량을 이용한 테러가 발생하여 13명이 사망하고 100여명이 다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IS와 연계되거나

IS의 선전물에 노출된 과격무슬림이 일으키는 테러에 유럽은 무방비로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대한민국은 이러한 테러를 아직까지는 겪지 않았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이나 테러방지법 등에서 사전에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나 테러위험 인물을 사전에 입국을 차단시킬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이나 난민법의 허술한 규정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테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므로 과격한 무슬림 테러리스트 등에 대한 과감한 입국제한 및 난민신청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샤리아 즉, 이슬람올법은 다른 모든 종교와 투쟁하고 이교도들에 대한 테러리즘을 통해 이들을 전멸시키는 것을 합법화하기 때문에 이슬람 올법은 무슬림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도록 할 수 밖에 없다. 샤리아법은 코란과 순나와 하디스로 구성되는 바 테러를 합법화하고 이교도들과 끊임없이 싸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럽의 테러는 다문화 정책으로 인하여 정착한 무슬림들이 그 사회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슬람법 즉, 샤리아 법에 따라 모든 세상이 알라의 종교에 굴복할 때까지 비무슬림과 싸우라는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외부적으로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결국 무슬림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 유럽과 다른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국가안전보장과 헌법적 질서유지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므로 특히 국가존립을 위하여 과격 무슬림의 입국 등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국가보안법은 잠입·탈출죄를 규정하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

나 그 지역으로 탈출하는 행위에 대하여만 처벌하고 (제6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나 외국인테러전투원이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에 애초에 입국을 사전 차단하는 조치가 아닌 입국을 허용한 뒤 처벌하는 조치만을 두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테러방지법이나 국가보안법에서 과격무슬림에 대하여 출입국 관리 단계에서 애초에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는 근거조항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출입국을 허용하는 것은 잠입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잠입한 뒤에 처벌할 것이 아니라 잠입 자체를 사전 차단하여야 국가의 안전과 헌법적 질서를 지키는데 훨씬 효과적이고 피해를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목적의 일환으로 긴박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위 법의 취지라면 정보수집 절차에 있어서 그 요건을 완화하여야 하고 인권보호관 제도는 그 취지에 반하는 제도이므로 테러방지법에서 삭제하여야만 누더기 법률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특히 남북이 대치하는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내부적 테러가 발생하는 경우 예상되는 위협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국가보안법과 테러방지법에 대한 강화조치가 더욱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난민인정 신청자까지 체류를 보장 받도록 하고 취업까지 허용하고 생계비, 주거시설, 의료, 교육까지 세금으로 충당케 하는 것은 인정되어서는 안되며 이러한 지원을 규정하는 제40조내지 제43조를 난민법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더욱이 출입국관리법에서 17세 미만자에 대한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배제하는 규정은 삭제되어야 하며 17세 미만자로서 반국가단체의 일원이거나 테러위험 인물인 경우의 입국을 배제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출입국관리법에서 일방적 사증면제조치로 인하여 우리국민은 비자를 받아야 입국이 가능한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바레인, 이집트국민에 대하여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으로 무사증입국을 허가하는 것은 이들 국적을 가진 과격 무슬림 테러위험 인물에 대하여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도록 하는 것이므로 위 국가 국민들에 대한 사증면제 조치를 반드시 철회하여야 한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이 인권국가를 지향하고 국민의 권리를 사람의 권리로 인정하여 외국인에게 국민과 거의 동일한 헌법적 권리 인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는 국민에게는 의무를 인정함과 동시에 기본권을 인정하고 외국인에게는 의무 없이 일방적 기본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국민을 외국인에 비하여 차별하는 권리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자국민을 외국인에 비하여 덜 보호하게 되는 전 세계 유일의 어리석은 헌법이 될 것이다. 더욱이 제3세대 인권을 표방하면서 대한민국이 세계정부를 이끄는 것처럼 이상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은 전 세계를 이끌 영향력과 재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현실을 무시한 안일하고도 몽환적인 환상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다.

5. 결 어

외국인에게도 인간으로써 인정되는 기본권 즉 생명권이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외국인에게 자국민과 동일하게 그 기본권을 보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다문화 정책을 취한 유럽의 경우에 수 많은 무슬림들이 유럽사회에

진출하였지만 세속법보다 샤리아법을 우선시하는 그들은 결코 유럽의 법질서와 문화에 동화되지 않았다. 최근 일어나는 일련의 테러는 그것을 입증한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이슬람국가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사증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할 뿐만 아니라 난민인정 신청자에 대한 지원까지 인정함으로써 난민을 가장한 과격한 무슬림 테러위험 인물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이 형성되었으며 이로 인한 국가안전보장과 헌법질서의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남북이 대치하면서 북핵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위험한 상황에서 대내적으로 테러가 발생 할 경우 대한민국은 매우 심각한 위기에 놓일 것이다.

따라서 국가안전보장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을 개정하여 '국민'의 권리를 '사람'의 권리로 변경하여 외국인에게 국민과 동일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과격 무슬림 입국자에 대한 사전 입국차단 조치와 일반적 난민 신청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위에서 살펴본 것 같이 출입국관리법과 난민법, 국가보안법과 테러방지법을 개정하여 과감한 제한을 두도록 하여야 한다. 

이슬람을 경계하라



이만석 (한국이란인교회 담임, 무슬림선교훈련원장)

예장통합 총회 파송 이란 선교사, 한국이란인 교회 담임, 무슬림선교훈련원장,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이슬람연구원장
한국기독교연합 이슬람대책연구원장 예장통합총회 이슬람대책위 전문위원 서울 장신대학교 졸업 서울장로회신학
대학 졸업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졸업(MA, ThM) Grace Theological Seminary 졸업(D.Miss) 무함마드의 계시는
왜 지구 바깥까 외 이슬람 저서 다수

들어가는 말

세계는 이슬람과의 전쟁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화롭고 풍요했던 유럽, 첨단과학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지상 낙원처럼 전망의 대상이었던 그 땅이 이슬람 때문에 매일 테러의 공포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스컴은 이슬람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을 인종차별주의자(Racist) 혹은 이슬람포비아(이슬람 공포증)환자로 부르며 벌떼처럼 공격하여 사회에서 매장시키려고 한다. 더구나 유럽 본토인들의 인구는 급히 줄어들고 있는데 반하여 유럽 내의 이슬람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슬람이 인구로 유럽 땅을 점령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이미 영국의 수도 런던은 무슬림 시장이 당선되었으며 각국의 무슬림들은 장관 혹은 국회의원 등 요직을 점령

해 가고 있다. 만일 이슬람이 평화를 지향하는 좋은 시스템이라면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이제 우리도 더 늦기 전에 이슬람의 정체를 알아야 할 때가 되었다.

이슬람과 무슬림

이슬람은 종교가 아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률, 교육, 군사, 외교, 철학 등 모든 것을 총망라한 시스템이며 이데올로기이다. 그러므로 인간 삶의 모든 면을 샤리아(이슬람율법)를 기준으로 허락된 것(할랄)과 금지된 것(하람)으로 나누어 간섭하고 통제한다. 실제로 무슬림들은 그 족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너무 강력한 처벌이 두려워 체념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슬람의 정체는 분명히 밝혀줘야 하지만 그들에게 직접적 피해를 보고 있는 무슬

림들은 절대로 미워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사랑과 섬김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눈을 뜨게 해서 자신들이 악한 체제에 속고 있음을 알리고 그들도 인간다운 자유와 권리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이슬람의 배타성

이슬람은 배타적이다. 어떤 이들은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라고 주장하지만 평화(salam)와 이슬람(Islam)은 어원이 다르다. 이슬람이라는 단어는 복종이라는 의미이며 묻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무조건 복종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슬람을 “묻지 마” 종교라고 한다.(꾸란5:101) 무슬림은 “복종하는 자” 즉 이슬람의 율법(샤리아)에 복종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슬람의 경전 꾸란에 보면 무슬림들은 절대로 비무슬림을 친구로 사귀지 말아야 한다. 기독교, 유대교인들을 친구로 삼지 말라고 명하고 있으며(꾸란5:51), 비무슬림들을 친구로 삼는 것은 자신이 알라의 적이라는 것을 명백히 증명하는 행위라고 말한다.(꾸란4:144) 그리고 타종교인들과 결혼을 금하고 있으며, 무슬림 남자와 기독교나 유대교를 믿는 여자들과의 결혼은 허용(할랄)되나 무슬림 여자가 기독교, 유대교 또는 그 외의 종교를 믿는 남자와는 결혼이 금지(하람)된다. 무슬림 부부 중 한 쪽이 다른 종교로 개종하면 그 결혼은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 기독교인 가정에서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이었으나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 사람이 이슬람으로 개종하거나 잠시라도 이슬람으로 개종한 적이 있다면 자녀들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영구히 무슬림으로 호적이 바뀐다.(이만석/BH Eldin, 중동 이슬람 사회의 실상(4HIM, 서울, 2017), pp.157-8) 이는 이슬

람으로 개종은 할랄(허용)이나 이슬람에서 타종교로의 개종은 하람(금지)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비무슬림들은 가장 사악한 짐승들이라고 가르치고 있으며(꾸란8:55) 타종교를 권하는 자도 죽여야 하고(꾸란4:89) 타종교인들과 평화롭게 공존하기를 원하는 자들도 위선자들로 정죄하고 죽이라고 명한다.(꾸란4:91)

이슬람의 폭력성

모든 무슬림들이 테러범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테러범은 무슬림이라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왜 순진한 무슬림이 갑자기 테러범이 되는 것일까? 꾸란에는 “종교는 강제로 하지 말지니라”(꾸란2:256)처럼 평화적 구절도 있으나 이는 후에 “이교도를 어디서 만나든지 살해하라”(꾸란9:5)는 구절에 의

해서 취소된다. 꾸란의 두 구절이 서로 모순이 될 때 나중 계시에 의해서 이전 계시는 자동 취소(Mansukh)되고 대체(Naskh)된다는 교리가 있기 때문에 이슬람을 깊이 알게 되면 이교도들과의 전쟁(Jihad)은 무슬림들의 의무(꾸란2:216)이며 알라와 무함마드를 위해서 목숨과 재산을 바쳐 싸우는 자들만이 진정한 무슬림(꾸란49:15)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슬람의 세계관은 평화의 집(Dar al Salam)과 전쟁의 집(Dar al Harb)으로 나뉜다. 무슬림들은 평화의 집에 살고 이슬람 외의 모든 종교 즉 기독교, 유대교, 불교, 힌두교, 무신론 ... 등 추종자들은 전쟁의 집에 산다는 것이 이슬람의 세계관이다. 따라서 이슬람의 윤리관은 전쟁 윤리를 따른다. 평시에 사람을 죽이면 범죄지만 전시에 적군을 죽이는 것은 많이 죽일수록 영웅 대우를 받는다. 그래서 뉴

육에서 9/11 테러를 성공시켜 하루에 3,000명을 죽인 오사마 빈라덴 같은 사람을 이슬람권에서는 영웅으로 존경한다. 무슬림들은 아내를 구타하는 것을 남편의 권리로 알고 있으며(꾸란4:34) 부모나 형제가 타종교로 배교한 가족을 죽이는 것을 명예로 알고 있다. 옥스포드 대학의 학술회원이며 이슬람 관련 책을 120권이나 저술한 유명한 학자 유스프 알 가라다위(Yusuf Al Qaradawi)가 “만일 배교자를 죽이라는 율법이 없었다면 이슬람은 오래 전에 사라졌을 것이다”고 말하는 것이 유튜브 동영상 사이트에 올라와 있다. 아랍권에서 흔히 듣는 이야기가 있다. 불신자들의 피를 흘리는 것은 할랄(허락된 것)이다. (무슬림들에 대한) 박해는 (불신자를) 죽이는 것보다 더 큰 죄악이다.(꾸란2:217, 꾸란2:191) 소위 이슬람 성직자들이나 이슬람 학자들로부터 이런 꾸란 구절을 실천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듣는다면 불신자들의 생명을 경시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말이 연약한 자들의 변명으로 들릴 것이다.

물론 모든 무슬림들이 이런 구절을 실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슬람을 떠나지 않는 한 그들의 행위를 비난할 수는 없다. 잔인한 테러는 규탄하면서도 어떤 무슬림도 그 테러의 원인을 제공하는 꾸란 구절이나 이슬람의 가르침을 규탄하지는 못하며 테러와 이슬람의 관련성도 부인한다.

거짓을 허용하는 이슬람

이슬람에서는 거짓말을 허용하는 타끼야(Ta-qiya)라는 교리가 있다. 알라, 이슬람, 꾸란, 무함마드, 이슬람 공동체의 유익 ... 등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허용(할랄)된다. 그래서 이슬람 학자들은 TV나 방송 혹은 책자를 통해서 얼마든지 거짓말로 이

슬람을 미화시킨다.(꾸란2:225, 꾸란16:106...) 심지어는 이슬람의 경전 꾸란을 번역할 때도 말도 안 되는 거짓으로 미화시켜 번역한다. 이것을 타끼야 번역이라고 한다. 이혼은 두 번까지 허용된다는 꾸란 2:229절을 명지대학교 최영길 박사는 “화해를 통한 두 번까지의 이혼은 허용된다”고 번역했는데 꾸란 아랍어 원문에는 “화해를 통한”이라는 말은 없다. 꾸란 4:142은 “위선자들은 알라를 속이려하나 알라는 그들을 속이신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최영길 번역은 “실로 위선자들은 알라를 속이려하나 알라는 그들을 먼저 아시니라”라고 번역했고 이슬람국제출판국에서 나온 번역본은 “위선자들이 알라를 속이고자 하나, 알라께서는 그들의 거짓으로 그들을 벌하실 것이니라.”라고 번역했다. 아랍어 원문에는 후와 카디우훔(Hwa khadiuhum:그분께서 그들을 속이신다)라고 되어 있다. 경전도 이렇게 마음대로 거짓으로 미화시키는 사람들이 무슨 거짓말인들 못하겠는가? 심각한 것은 이들이 무식한 광신자들이 아니라 소위 학자요 박사요 대학교수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라든지, 이슬람에서는 여성들의 인권을 높이 존중한다든지 이슬람은 폭력이나 테러와 관련이 없다든지 또는 모든 무슬림들은 할랄음식만 먹는다거나 할랄 음식은 위생적이라는 등의 그들의 말이 거짓말임을 분별해야 속지 않을 수 있다.

이슬람의 여성비하

이슬람은 여성들의 인권을 남성의 절반만 인정한다. 상속도 딸은 아들의 절반만 받아야 하고(꾸란4:11) 법정에서 한 남성의 증언은 여성 두 명의 증언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꾸란2:282). 이슬람 제2의 경전 하디스(Hadith)에 의하면 “메카



방향으로 기도할 때 그 앞으로 개나 당나귀나 여자가 지나가면 그 기도는 무효다”(Sahih Bukhari Volume 1, Book 9, Hadith No. 490). 남편이 자기 아내를 때리는 것은 할랄(허용된 것)이다(꾸란 4:34). 여자가 통치하는 나라는 성공하지 못한다(부카리 하디스). 잠자리를 거절하는 여인은 때려도 된다. 외출할 때는 베일을 써서 간음을 피하라. 즉, 베일을 쓰지 않은 여자는 간음해도 된다(꾸란 33:59). 아내에게 탈락(Talaq:이혼)이라고 구두로 3회 통보하면 이혼이 가능하다(꾸란2:229-230). 이런 것들은 이슬람권에서는 모든 무슬림들의 일반상식이다. 이슬람에서는 남자가 여인의 몸을 사용한다는 계약서와 함께 몸값(Mehr)을 지불해야 결혼이 성립된다. 남자가 아내를 바꾸기 원하면 지불했던 몸값을 빼앗지만 않으면 원할 때는 언제든지 이혼이 가능하다.(꾸란4:20)

이런 내용의 가르침을 어려서부터 정상이라고

배워왔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진다는 것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여성상위 시대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딸들이 무슬림들과 결혼하는 것은 자유와 인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주의 시켜야 할 것이다.

실패한 다문화 정책

유럽 선진국의 정상들은 문화, 종교, 인종, 언어, 국적, 피부색 ...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지 말고 서로 존중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자는 다문화 정책이 무슬림들 때문에 철저히 실패했다고 이미 선언했다. 이들은 오일머니와 57개 이슬람국가가 가입되어 있는 OIC(이슬람협력기구)의 정치력을 통해서 혹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무슬림 인구의 힘으로 샤리아(이슬람율법)로 세상을 다스리기 원한다. 이들이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누릴 수 없으

며 가정과 교회를 지킬 수 없고 국가안보를 지킬 수 없으며 후손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미래를 물려줄 수 없고 이미 속고 있는 무슬림들을 돌아오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우리 주변에 무슬림들이 있다면 그들이 속고 있음을 알려주고 하루 속히 돌이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자유와 인권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할랄 장려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에 할랄 인증 붐이 일고 있다. 할랄 인증이란 무슬림들에게 사용(식용)을 허용한다는 인증서이며 이는 정부에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 사원이나 사설 이슬람 단체에서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발급한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식품은 물론 화장품이나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할랄 인증을 받는 것으로 일확천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 누구나 새로운 일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한 쪽의 일방적 견해만 들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반대 의견도 들어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할랄인증서 발급에 소요된 비

용을 한 건당 2천만 원까지 지원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이들을 향해서는 “국민들이 돈 벌겠다는 일에 정부가 도와주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불편해 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인가?

할랄과 하람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로 인간의 삶을 통제하는 수단이다.

이슬람의 궁극적 목적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로 다스리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것은 소위 온건한 무슬림들이나 또는 극단적 무슬림이나 동일한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 일단 음식을 미끼로 이슬람 율법의 노예를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의복, 약품, 화장품, 세수하는 법, 목욕하는 법, 결혼 규정, 성생활, 금융... 이런 부분을 하나씩 점령해 나가면 결국 이슬람 율법으로 통치하게 되는 것이다. 할랄 인증서를 받으면 생산라인에 할랄 감시원이 배치되고 이들은 식품의 생산과정에서 이슬람 율법이 잘 지켜지는가를 확인해서 보고한다. 만일 부정적인 보고서가 들어가면 당장 할랄 취소 공문이 날아온다. 그럴 경우 회사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직원들을 모아 놓고 이슬람 율법에 대해서 교육할 뿐 아니라 그것을 지키라고 강요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무슬림들도 그 지긋지긋한 이슬람 율법(샤리아)의 울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한다. 그런데 돈 몇 푼 더 벌자고 스스로 이슬람 율법의 종이 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할랄 인증서 발급은 꾸란에서 금하는 일이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슬람이 발생한 것은 주후 622년이며 거의 1400년 동안 누구도 할랄 인증서를 발급한 일이 없었는데 이것이 마치 이슬람 율법

에서 장려하는 일로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할랄인증서 발급이 만일 이슬람 율법에서 권하는 것이라면 1,400년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미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지금도 할랄 인증서 발급에 소극적이다. 왜냐하면 이는 꾸란에서 금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너희 혀들로 거짓하여 이것이 허락된 것(할랄)이요 이것이 금지된 것(하람)이라 말하지 말라. 이는



알라에 대해 거짓이거늘 실로 알라에 대하여 거짓하는 자는 변성하지 못하니라.(꾸란16:116)

돈 몇 푼 벌자고 이슬람의 경전에서 금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무슬림이 아니라 종교를 빙자한 사기꾼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범한 무슬림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먹고 싶은 것을 먹지만 극단적 원리주의자들은 할랄음식만 고집하기도 한다.

모든 무슬림들은 할랄음식만 먹지 않는다.

필자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로 통치하는 이란에서 20년간 살면서 시장 어느 곳에 가도 할랄을 언급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런데 이슬람 인구

가 1%도 채 안 되는 대한민국에서 소위 무슬림 학자라는 사람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할랄 바람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 2017년3월1일자 이코노미 인사이트는 세계 인구의 23%를 차지하는 이슬람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기 때문에 2019년에는 할랄시장 규모가 3조7천억 달러가 될 것이며 그 규모는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은 근거 없는 허구일 뿐이다. 왜냐하면 모든 무슬림들이 할랄 음식만 먹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전체 인구의 99%가 무슬림인 이란에서도 아르메니안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보면 “이 업소는 비무슬림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라는 간판을 걸어 해당 식당에서 파는 음식은 할랄이 아니라는 것을 알린다. 그런데도 음식이 맛있다고 소문이 나면 무슬림들이 줄을 지어 들어가서 먹는다. 그런데도 아무도 왜 할랄 음식이 아닌 것을 먹느냐고 단속하거나 묻는 사람이 없다. 이슬람권에서 술은 율법으로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96%가 무슬림인 이라크에서 한국 맥주가 순하고 맛이 있기 때문에 현지인들이 많이 찾고 있어 매상이 급증하고 있다(세계일보 2015.1.19.)는 보도는 무슬림들이 할랄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할랄 인증 받은 식품은 위생적이라는 말은 거짓이다.

할랄 도축장은 위생적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다비하(Dhabiha)방식으로 도축해야만 할랄 인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비하 방식은 첫째 무슬림이 도축해야 하고, 둘째 짐승이 죽을 때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방향을 보면서 죽어야 하고 셋째 목의 식도와 기도의 혈관을 자를 때 “비스밀라(알라

의 이름으로)”라고 외치며 잘라야 하고 넷째 짐승의 피를 빼야 하며 다섯째 이미 죽어 있는 짐승은 먹을 수 없으며 여섯째 돼지고기나 술을 금하는 것이 기본 골격이다.

일반적인 도축에는 전기 충격방법을 쓴다. 고압 전기로 머리에 충격을 주면 0.3초 내에 기절하고 5초 내에 죽기 때문에 짐승이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도살된다. 이 방법은 이미 죽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규정과 피를 빼고 먹으라는 규정 때문에 할랄식 도축에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할랄 도축장에 가보면 목을 반쯤 잘린 소가 거꾸로 매달려 버둥거리며 심장이 뛸 때마다 잘린 목에서 피가 울컥울컥 쏟아져 나오면서 사방으로 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피가 사방으로 튀는데 위생적일 수가 없다. 또한 극도의 고통과 스트레스와 분노를 느끼며 죽어가는 동안 소의 몸에서 독성이 생성된다. 이런 고기를 계속 먹으면 질병이 발생하고 수명이 단축되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의 3배 이상 되는 카타르의 평균수명은 훨씬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이슬람의 율법에 의하면 “꾸란에서 금한 것은 하람(금지된 것)이며 꾸란에서 허용한 것은 할랄(허용된 것)이니라. 꾸란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할랄(허용된 것)이니라.(Sunan Abi Dawud 3800, English Translation Hadith 3791)라는 하디스의 기록 때문에 성장호르몬이나 유전자 변형을 시켜도 꾸란에 이를 금하고 있는 구절이 없으므로 할랄로 인정받는데 문제가 없으며 그것이 인체에 해를 끼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법적으로 할랄이기 때문에 죄의식도 느끼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영방송에서 이를 웰빙식품으로 홍보해 주는 것은 몰라서 그랬다고 변명하기에는 피해가 너무 큰 범

죄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할랄규정에 의하면 할랄제품과 하람제품이 접촉하면 할랄이 취소된다.

성경에도 거룩한 고기가 부정한 물체에 닿으면 부정하게 된다고 하였다. (학2:13) 이슬람의 할랄 규정도 마찬가지로 할랄 고기를 돼지고기 요리하던 도마에서 썰거나 개고기를 자르던 칼로 자르면 할랄은 취소된다. 그래서 도축과정에서 운반, 진열, 판매, 요리과정 등의 모든 과정에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하지만 모든 과정을 무사히 통과했을지라도 무슬림 아닌 사람이 요리했거나 부정한 것과 접촉되면 할랄은 취소된다. 할랄 규정은 음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인간도 무슬림이 아니면 하람이다. 예를 들면 무슬림 여자는 기독교인이나 불교도 혹은 무신론자인 남자와 결혼할 수 없는데 이유는 하람(금지)이기 때문이다. 너 무 사랑해서 꼭 결혼하고 싶다면 남자가 개종해서 무슬림이 되면 할랄(허용)된다. 비무슬림은 인간 자체가 하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슬람 율법을 꼼꼼히 적용한다면 비무슬림이 할랄 식자재를 생산, 운반 판매 요리과정에서 손을 댔다면 그것은 이미 할랄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무슬림들에게 돈 받고 할랄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인증서를 발급해 준다는 사실은 이들이 이슬람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할랄은 통일된 기준도 없고 가변적이다.

전 세계 할랄 인증 기관은 약 300개 정도 된다. 그런데 각 기관마다 기준이 다르다. 알코올은 하람이지만 음식에 섞인 것은 취하지만 앎을 정도

면 할랄로 인정하는 곳도 있고 0.1%까지 허용하는 곳도 있고 허용을 금하는 곳도 있다. 게다가 무프티(Mufti)급의 성직자가 파트와(Fatwa:이슬람 칙령)선언을 통해서 수시로 바꿀 수도 있다. 자기 아내 외의 여자와의 성관계를 하는 것은 하람(금지)이지만 2~3시간짜리 시한부 결혼 계약서를 쓰고 이슬람 성직자가 서명하면 할랄(허용)된다. 어제까지는 하람이었다가 오늘부터는 할랄 될 수도 있다. 무슬림학자들에게는 할랄과 하람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처럼 편리한 것이 없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배교자를 죽이는 것도 할랄이고 비무슬림들을 차별하는 것도 할랄이다. 어제 할랄이었던 것을 오늘 하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나에게서는 할랄이고 너에게는 하람이라고 해도 감히 이슬람 성직자에게 그런 모순이 어디 있느냐고 따지고 달려들 만한 용기를 가진 사람은 없다.

맺는 말

이런 말도 안 되는 할랄 규정을 잘 지킬테니 할랄 인증서에 도장만 찍어달라고 돈 들고 쫓아다니는 행위는 비록 매상을 조금 올리는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자신과 회사 근로자들을 이슬람 율법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일이다. 이런 할랄 인증서를 발급받는데 소용된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해 주는 것은 특정 종교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 세금을 허비하는 위헌 행위다. 무슬림들을 진정 사랑한다면 그들을 그 잔인한 샤리아(이슬람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어야 한다. 샤리아는 비무슬림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하람이라고 가르친다.(꾸란4:144, 꾸란5:51) 비무슬림들과 싸우는 것은 할랄(허용)을 넘어 와집(의무)이다.(꾸란2:216) “비무슬림의 피를 흘리는 것은 할랄(safk

dimaa al kuffar halal)”이라는 말은 무슬림들의 상식이다. 할랄 인증을 받아 돈을 벌겠다는 것을 말리지는 않았지만 그 노력으로 제품의 품질을 높인다면 소수의 원리주의자들을 제외한 대부분 무슬림들은 기꺼이 이용할 것이다.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무슬림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면서 이슬람 율법의 영향력을 키워주며 스스로 이슬람 율법의 노예가 되겠다는 행위는 결국 우리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자해행위가 될 것이기에 막아야 할 것이다. 



무슬림 여성, 금기 아무나 깨나?



소윤정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선교대학원 교수)

한세대학교 신학과 졸업후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에서 AIGS M. Div . (영어과정)를 마치고 선교학 전공으로 Th.M(2003년)과 Ph.D.(2008년) 학위를 받았다. 서울기독대학교 선교학 겸임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아세아연합신학대학 선교대학원 아랍선교학을 전담하면서 아랍문화연구원을 맡아 사역하고 있다.

2017년 8월, 레바논 의회는 성폭행 · 폭행 · 납치 · 강제결혼에 관한 형법 522조 폐지를 결정했다. 폐지된 법에는 성폭행 가해자 남성이 피해자 여성과 결혼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요르단과 튀니지도 이와 유사한 법을 폐지했고 바레인도 폐지를 추진 중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리아, 리비아, 이라크, 알제리,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등의 국가에서는 여전히 피해자와의 결혼을 통한 '성폭행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도 되었다.¹

중동국가의 이야기가 우리와 다른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면, 13세 소녀에게 성폭행범과 결혼하라는 망언으로 전 세계를 경악시킨 말레이시아 국회의원 샤부딘 야하야 사건에 관한 2017년 4월 13일 연합뉴스의 보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레이시아 국가법은 16세 이상의 여성만 법적으로 혼인이 가능하지만 이슬람법 샤리아법정에서는 16세 이전에도 부모와 샤리아법정의 허가가 있을 경우 혼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샤부딘 야하야는 "성폭행범과 피해자 모두 새 삶의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둘이 결혼하면, 더 건강하고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피해자는 최소한 남편을 얻

1. <http://news.join.com/article/22361032>, 2018년 2월 10일 중앙일보, "히잡을 벗어 던져라" 83세 할머니도 나셨다 (이란판 '미투', 2018년 3월 28일 접속).

짧아요."라고 말하였다.² 이것이 바로 세계관과 가치관의 차이이다. 일반적인 가치관에서 사부딘 아하야는 폐륜(廢倫)적으로 13세 소녀의 인권을 유린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슬람 법을 근거로 13세 소녀에게 자신을 성폭행한 40세 남성과 결혼하여 두 번째 부인이 되라고 한 것이다. 이슬람 사회에서는 이러한 성폭행의 경우 종종 명예살인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사부딘 아하야는 이슬람적 사고를 바탕으로 성폭행한 남성과 결혼하는 것이 성폭행에 대한 최상의 해결방법이라고 본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최근 5년간 이슬람 근본주의를 바탕으로 이슬람 행동양식이 강화되는 가운데 9천 명 이상의 16세 이하 소녀들이 결혼하여 조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의 국회의원 사부딘 아하야는 "12~15세 연령의 여자가 이 일부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해 지속적인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³

이러한 현상은 이슬람 법 '샤리아'에 대한 무프티들의 법적 견해를 바탕으로 한다. '샤리아' 상의 법적 견해를 '파트와'라고 한다. '파트와'는 현실 생활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문제들에 관한 결정이 필요할 때 무프티와 같은 이슬람법 해석 전문가들이 이슬람신앙의 근간인 꾸란(경전)과 하디스(무함마드 언행록), 이즈마(합의), 끼야스(유추)등의 샤리아 법원(法源)에 의해 내리

는 판단을 말한다. 그러므로 파트와는 질문에 대한 답변의 형식으로, 각 국가와 지역마다 무프티들의 견해가 유사한 안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이슬람의 하나피 학파에서는 여자는 9세부터, 남자는 12세부터, 말리키 학파는 여자, 남자 18세부터, 사피이 학파는 15세부터, 그리고 한발리 학파는 남자는 1차 성징이 나타난 경우, 여자는 1차 성징 이후 월경이나 가임의 징표가 나타났을 때를 성년으로 보며 15세가 되면 성년이 된 것으로 간주하여 결혼이 가능하다.⁴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종종 예멘이나 중동 및 아프리카의 이슬람 국가에서 9살 된 어린 소녀가 결혼 지참금인 '마흐르'를 지불한 돈 많은 부자 할아버지와 결혼하는 경우를 본다. 파트와는 결혼에 있어서 나이차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⁵ 여성의 경우 고등학교 교육을 마치는 것보다 혼처가 생기면 결혼을 우선시 한다는 법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⁶

이와 같이 이슬람권에서 행해지고 있는 조혼, 성폭행 면죄부로서의 결혼, 일부다처제, 시아파에서 행해지던 임시결혼 그리고 명예살인과 여성할례, 히잡 등은 단지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관습일까? 그렇다면 왜 무슬림 여성들은 이란에서 히잡을 벗어 막대기에 매고 흔들며 시위하는 것일까? 왜 걸프전쟁 (1990-91년)동안 미군 여성들의 운

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11/0200000000AKR20170411159100797.HTML?sns=fb>, 2017년 4월 13일자 <연합뉴스>, 2017년 8월 22일 접속.
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11/0200000000AKR20170411159100797.HTML?sns=fb>, 2017년 4월 13일자 <연합뉴스>, 2017년 8월 22일 접속.

4. 이훈동, 계경문, 박순례, 박재원, 이명원, 이인섭, 『파트와를 통해 본 이슬람사회의 규범과 현실 : 제1권 가족문화 관련 파트와』, 67-70.
5. 이훈동, 계경문, 박순례, 박재원, 이명원, 이인섭, 64.
6. 이훈동, 계경문, 박순례, 박재원, 이명원, 이인섭, 69-70.

전을 목격한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은 운전허용을 요구하는 시위를 했던 것일까? 1990년부터 시작되었던 운전허용 요구 시위는 28년 만인 2018년이 되어서야 결실을 맺게 되었다. 오는 6월부터 드디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들에게 운전이 허용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와 같이 여성운전을 허용하게 된 것이 실세인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



(Mbs)의 '개혁 방침' 덕분이라고 강조하고 있다.⁷

자신의 누드 퍼포먼스로 잘 알려진 도올 김용옥의 딸 김미루, 그녀가 2011년 9월 25일 <SBS 스페셜 - '아랍여인, 금기너머를 보다'>를 통해 요르단을 방문하여 여성복싱선수, 여성 국회의원, 여성 방송 DJ를 만나 금기의 영역에 도전하고 있는 무슬림 여성들에 관한 내용을 방송한 일이 있다. 과연 김미루의 방송내용처럼 무슬림여성들이 모두 금기를 깨고 있는 것일까? 필자는 2006년 말레

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여행에서 만난 말레이시아 부부를 잊을 수가 없다. 식사접대를 하면서 두 번째 부인이었던 무슬림여성이 필자와 동행한 한국인 자매에게자신의 남편이 부자이니 세 번째 부인이 되는 것이 어떠냐고 진지하게 제안했던 일이 있었다. 무슬림 가정에서 (아프리카에서도) 종종 있는 일이지만 부인이 남편의 또 다른 부인을 얻는 일에 적극적인 것과 같은 일은 단순히 세계관 차



이에서 오는 문제만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자신이 자라오고 생활해오던 고향을 떠나 이주민으로 삶의 터전이 바뀐 무슬림 여성들이 또 다른 세상을 만나고 다양한 교육에 노출되면서 본국에서와 달리 자신의 인권을 주장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히잡을 벗어두고 시위하는 이란의 사례와 함께, 프랑스와 불가리아와 같이 유럽 국가들 중에는 공공장소에서 부르카를 쓰는 것에 대한 금지 법안이 통과되어 여성에게 히잡을 씌우는 것은 여성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무슬림 여성의 히잡을 벗기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해 무슬림 여성들 상당수는 히잡을 벗기는 것은 자유 침해이고 히잡

7. <http://news.joins.com/article/22361032>, 2018년 2월 10일 중앙일보, "히잡을 벗어 던져라" 83세 할머니도 나섰다(이란판 '미투'), 2018년 3월 28일 접속.

을 쓰는 것이 여성의 자유임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 평생 히잡을 쓰고 부르카를 쓰면서 자신만의 세계 속에 몸을 숨겨왔던 무슬림 여성들은 부르카 속 세상이 더 자유롭게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최소한 부르카 속에 무슨 옷을 입었는지 히잡 속에 무슨 색으로 머리카락을 염색했는지 니갑과 부르카 속에 감추어진 자신이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웠을 것이다. 그러나 그 자유는 극히



국한된 자유이며 인터넷 매체를 통한 다양한 정보와 교육에 노출되고 있는 무슬림 여성들은 진정한 자유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길은 아직 멀고도 험해 보인다.

무슬림 여성들 스스로의 자아 정체성의 혁명이 없는 한 금기는 결코 깰 수 없을 것이다. 남성과 동등한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구원 받아야 할 대상으로서의 죄인이요,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그날이야말로 진정한 무슬림 여성들의 금기를 깨는 시작이 될 것이다. 이슬람 사회의 변혁과 내일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미 확실한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의 복음은 확실한 백지수표이다. 회심한 무

슬림 여성들이 그리는 만큼, 그들의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백지수표이다. 다양한 이슬람법과 관습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수많은 시간과 희생을 감수해야 하며 그 결과도 불투명해 보인다. 이는 이슬람의 근간인 꾸란과 하디스, 그리고 샤리아에서 여성에 대하여서 남성과 다른 분명한 차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남성의 1/2밖에 법적 권리가 효력이 없는 것과 신실한 이슬람 신앙인으로서 여



성에게 천국에서의 보상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점, 혼인관계에서 남성은 여성을 구타할 권리가 있는 점, 간음과 간통의 주체는 여성으로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하는 점, 결혼 지참금의 결정권자는 신부인 여성의 아버지이고 배우자 선택권이 없는 점, 이러한 근본적인 가르침이 있는 한 이슬람 페미니즘의 주장과 한계는 물을 보듯 뻔해 보인다. C

이슬람권내의 무슬림출신 기독교인들

이모세 (무슬림 선교사)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고린도전서 7:20)”

몇 년 전 ‘이슬람 상황화 선교사역’¹을 비판하는 한국인 선교사가 자신이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된 이슬람 형제를 소개해주었다. 기존의 기독교방식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며 그를 자립시키기 위해서 가축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자랑했다. 1년 뒤 그 선교사를 만났을 때, 그 현지 개종자에 대한 소식을 물어보니 그의 개종은 사실이 아니었고, 자신의 생존을 위한 비즈니스 차원에서 개종한 것이 드러났다고 고백했다. 개종을 기대하는 한국선교사의 강한 요구를 읽어낸 현지 무슬림이 그것을 이용

해서 치부한 사건인데 이런 일은 선교 현장에서 자주 일어난다. 심지어 국내에 거주하는 무슬림이주자에게서도 속는 한국교회도 존재한다.

한국 교회와 선교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복음전파방식과 교회론은 이슬람권에서 이처럼 그 영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용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부작용 발생 원인에 대한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국교회식 개종의 요구를 현지 무슬림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이들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슬림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현재의 이슬람권에 존재하는 교회에 소속되면 그들의 기존 움마 공동체에서 완전히 추방된다. 그래서 다시는 가족

1. 상황화(contextualization) 선교란 혼합주의(syncretism)를 경계하기 위하여 복음전도에 있어서 문화적인 이해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편집자 주).

과 친척과 사회에 접근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이곳의 교회들은 그들을 지속적으로 지키고 양육시켜 주지도 않는다.²

그리고 그들은 개종 이후 기독교에 교단이 많은 것을 알고 혼란스러워한다. 게다가 기독교의 예배가 이슬람보다 경건해보이지도 않는다고 여긴다. 그럼에도 무슬림들 기독교에 관심을 보이는 실제적인 이유는 영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물질적인 혜택 때문이다.

그래서 20여 년 전 이 땅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무슬림 회심자 리더들은 기존교회가 아닌 그들만의 가정교회를 만들어서 이슬람권내에서 남아서 성도로 살아가기로 결정했다. 물론 이런 결정은 양쪽으로부터 환영받을 수 없어서 그들은 진정으로 외롭게 살아야 했다. 그러나 그들의 입장을 지지하고 선교학적으로 정리하는 외부인 선교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³ 그리고 지금 이곳에는 이슬람권에 남아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살아가면서 이슬람으로 부터는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떠나지 아니하고 스스로를 ‘이사이(Isai)’⁴라고 부르면서 이슬람권내에서 주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이들의 수는 거의 수십만 명에 이르게 되었다. 물론 이들 중에는 영적인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자신의 신

앙과 정체성을 정리하지 못하고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이들도 많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 리더들은 신학교출신도 아니지만 종교재판 같은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무슬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현상은 현재 이 나라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다. 핍박이 심한 모든 이슬람권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다. 물론 이런 ‘상황화 전략’이 최근 ‘내부자운동’이라는 극단적인 모습으로까지 발전되었지만 이슬람권에 이런 식으로 복음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슬람권 선교지 안에서 벌어지는 이런 현상에 대해 한국교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필자는 이런 현상이 한국교회에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고 본다. 주님의 나라의 원칙보다는, 교회건물과 조직을 더 중요시여기는 신학교출신 목회자중심의 기존의 기독교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은 세상에서 버린 자들을 사용하여 복음 전파가 어려운 이슬람권내에서 새로운 교회들을 세워나가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에 이슬람이 전파되는 데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들의 잘못된 종교관만을 들춰낼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비성경적인 요소를 찾아내서 제거하려는 눈물어린 노력을 강조해야 할 때이다.⁵ “우리가 성경적인 높은 가치와 도덕을 갖출 때에 비로소 무슬림으로부터 복음에 대한 자발적인 반응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우리


2. 이곳 전통교회에서 실제로 무슬림이 복음을 받아들여도 그들을 환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다. 한 개 교단이 무슬림 사역을 별도로 진행시키고 있지만 세속주의 무슬림을 제외하면 열매가 별로 없는 상태이다.
3. 필 파샬(Phil Parshall)을 시작으로 이슬람권 상황화 전략을 들 수 있다. 필 파샬의 저서, *New Paths in Muslim Evangelism - Evangelical Approaches to Contextualization*, 『무슬림전도의 새로운 방향』, 중동선교회” 참조.
4. 이사이’는 예수의 아랍어 호칭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라는 의미로 이슬람권내에서 살아가는 무슬림출신 성도들을 지칭한다.

5. 한국 토착인중에서 무슬림이 된 이들 중 73%가 기독교인이었다는 점과 그들이 기독교를 버린 이유는 한국교회와 리더의 타락과 타종교에 대한 극단적인 배타주의, 모호한 신학이라는 이유에 주목해야 한다(『무슬림선교를 위한 이슬람연구』, 2018년 통권 3호 p. 123).”



는 그동안 한 인간의 외면만 강조한 나머지 내면이 변화지 않은 개종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이슬람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종교이며 기독교처럼 선교를 중요시한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이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해야 하는지가 큰 관건이다. 아마도 지금까지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접근방식이나 외형만 변경시키려는 방식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이슬람권에서의 대부분 개종의 자유가 없으나 이슬람권이 소수인 나라에서는 개종의 자유가 대부분 인정된다. 그러므로 먼저 겸손히 이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슬람 안에 감추어놓으신 연결고리를 찾아내서 그

들에게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사랑으로 제시해주신 그들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해 줄 때 그들은 반응할 것이다. 물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 반응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참고로 지금 중국에는 이미 중국교회에서 파송한 중국선교사들이 이곳 이슬람권 전문 선교단체 아래에 들어와서 이슬람 선교를 배우고 있으나 한국선교사는 아무도 없다. 몇 년 후에 중국선교사들이 한국선교사 보다 이슬람 선교에 더 전문적인 이들이 나올 것이다. 우리는 이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슬람지역의 선교사역

조은종 (선교사)

예수전도단 간사이자 선교사, 독립교단선교단체연합회소속 목사이다. 26년 전 선교에 헌신하여 황소걸음으로 한걸음씩 흔들림 없이 심지를 굳게 하여 오늘도 우직하고 힘차게 걷고 있다. 선교 현지에서 태어난 2남1녀의 아빠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전적으로 헌신되어 기독교심리전문가로 활약중인 현숙하고 지혜로운 한 여자의 남편으로 뽀래하고 청소하며 살아간다.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 모르면 손해를 보고 심지어는 치명적인 위험에 봉착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꼭 멈추어야 할 곳에 멈추지 않으면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고 반대로 가해자가 되어 전혀 예상치 못하게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할 것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그중의 하나가 무슬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슬림들이 전 세계에 약 17억이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도 우리와 가까이 있어서 전철 안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은 종교이고 무슬림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무슬림에게는 생을 지탱하는 5가지 기둥이 있는데 그것은 신앙고백(샤하다), 기도(살라트), 구제(자카트), 금식(사움), 성지순례(하지)입니다. 신앙고백(샤하다)은 “알라 외에 다

른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알라의 선지자다”라고 선포하는 것이고, 기도(살라트)는 하루에 5번씩 정해진 시간에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며, 구제(자카트)는 의무적이나 자발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이며, 금식(사움)은 거룩한 달 라마단 기간에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행하는 금식이며, 마지막인 성지 순례는 일생에 적어도 한번은 성지인 메카에 순례하는 것입니다.

이슬람권 지역에서는 매일 듣게 되는 기도로의 부름인 아단 혹은 아잔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언제나 기도를 시작하며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네 번 소리치는데 이것은 테러를 자행하며 외치는 소리로 유명해졌습니다. 그 내용은 “나는 알라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음을 증언한다,”라는 말과 이어서 “나는 무함마드가 알라의 사

자임을 증언한다. 어서 나와 기도하라. 와서 구원 혹은 성공 받으라. 알라는 위대하시다. 알라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입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라마단이 올해는 5월 15일부터 6월 14일 까지 입니다. 제가 속한 선교단체인 국제 YWAM에서는 1992년부터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을 진행하는데 올해로 26주년이 되었습니다. 기도로 무슬림들에 대한 무지와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훈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쪽 눈으로만 그들을 보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당장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십자군 전쟁에서처럼 싸우고 어린이 까지 잔인하게 진멸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눈과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과 예수가 누구인지 알리기 위해 가장 절실한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무슬림들은 삶과 종교가 하나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고유 명절이 설과 추석이라면 그들의 가장 큰 명절은 일출부터 일몰까지 30일의 금식이 끝나는 날 집집마다 양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해 속죄의 의미로 양을 잡는 고르반이라는 축제일입니다. 그들은 기본적인 인사부터 먹는 것을 비롯한 모든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온통 무슬림 정신과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중동이나 아프리카뿐 아니라 중앙아시아와 중국까지 무슬림들은 매일의 삶을 이슬람의 전통 속에 자신을 맡기는 공동체 생활에 익숙한 가운데, 부모가 살아온 그대로 따라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단 한 명도 단언컨대 구원의 확신이 있거나 그들이 믿는 알라

와의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고 공동체에서 축출될 것입니다. 차라리 그들은 알라 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의식하며 쓰레기 버리러 가면서도 멋지게 차려입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슬림으로서의 여자의 인생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추앙하는 무함마드도 여러 명의 여인들과 살았듯이 현대 무슬림 중에도 결혼을 여러 번 하는 사람을 보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무슬림 남자의 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거룩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까요? 그러 매우 어렵다는 것을 눈으로 목도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역하는데 힘들 때도 많습니다. 무슬림 중에 어렵게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자기가 죽을 때 장례식에 누가 와 줄까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도끼로 다리를 찍어버린다고 위협해서 신앙을 제대로 유지 못하기도 하고, 대학생 때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가 결혼의 시기에 앞으로 살아갈 삶이 두려워서 예수 믿는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동안 쏟아 부은 사랑과 정성 그리고 그 많은 시간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릴 때 사역자는 매우 힘듭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로 몸이 아파 소천하신 선교사도 많을 정도로 이슬람 사역이 쉽지 않지만 사역자로서 보람도 큼니다. 어렵고 척박하고 통제가 심한 사회에서 오래 생활하다 보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힘든 곳에서 함께 사역하는 동료들의 하나 됨은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한국에 나와서도 정기적으로 모여 잠시 떠난 선교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끈끈한 관계를 이어갑니다. 결혼 전부터 한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며 20



여년을 동일한 곳에서 함께 섬김은 놀라운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자유롭고 풍요한 자유대한에서 떠나온 선교지 영혼들을 생각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 귀한 마음은 적어도 하나님은 알아주실 것입니다.

무슬림도 여기저기 마음대로 다닐 수는 있지만 그들의 삶도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커다란 자유 없는 감옥살이와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도 나름 웃고 즐기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으니 그대로 두자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의 복음은 어떤 복음인지 의아해집니다. 충분히 누리고 인정받으며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가난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우상이 가득했던 우리나라에 와서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며 복음을 전한 귀한 섬김의 결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 사람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은 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게다가 그분이 주신 자유는 모든 이름위에 홀로 뛰어나신 만왕의 왕께서 보혈 흘리신 십자가의 공로에 근거한 것이고 그 효력이 천하만국 백성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으며 사는 사람은 바울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는 고백(행20:24)이 남의 것이 아닐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고 이슬람의 거짓에 매여 흑암 속에서 살아가는 17억의 무슬림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전파되도록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슬람에 대한 책갈피



송인규 (한국교회탐구센터 소장)

합동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 및 한국기독교학생회(IVF)의 총무를 역임하였다. 현재 한국교회탐구센터 소장으로 있다.

“이슬람”은 그 주제의 범위가 그야말로 한없이 넓고 넓다. 이 단어는 이슬람 신앙 체계를 의미할 수도 있고, 매우 넓게는 아랍인의 역사나 무슬림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뜻할 수도 있으며, 아니면 반대로 상당히 좁게 꾸란에 나타난 신관이나 “알라”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일 수도 있다. 또 주제에 접근하는 이의 관심사가 선교 사역인지, 문명의 충돌이나 사회적 공존의 사안인지, 아니면 테러리즘인지에 따라서도 “이슬람”이라는 이슈는 상당히 다양한 모습으로 부각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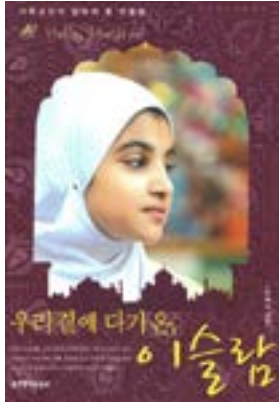
그러니까 “이슬람” 연관 서적들이 종류와 가치를 다 열거할 수 없는 정도로 수북히 쌓여 있다 해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다. 따라서 필자는 이 수많은 주제의 서적들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누고, 각 범주

에 해당되는 책자들을 2권 혹은 4권씩 소개하고자 한다. 물론 이 세 가지 범주도 완전히 구별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 주제의 가닥을 잡는 데는 유용한 방편이 되리라고 믿는다.

첫째 범주: 무슬림의 신앙과 삶

가장 우선적으로 소개할 책들은 무슬림의 문화 생활 전반에 대한 것이다. 사실 무슬림은 그리스도인의 경우와 달리 종교와 일상적 삶이 그렇게 명확하게 나누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곧 소개될 책자의 내용에는 종교, 문화, 생활 등이 함께 등장할 것이다.

우선 제일 먼저 등장하는 두 권의 책은 모두 한국인의 저술이다.



유해석 지음
「우리 곁에 다가온, 이슬람」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9).

저자는 한국인 선교사로서 이집트에서의 현지 사역과 웨일스 대학교 이슬람학부에서의 수학으로 경력을 쌓은 인물이다. 원래 이 책은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쓰였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둘째 범주의 책자로 분류될 수도 있다), 일반적 이슬람 안내서로서 손색이 없다고 여겨져 첫째 범주에 넣었다.

책자는 크게 1,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이슬람

- 제1장 이슬람과 무슬림 무엇이 다른가?
- 제2장 무슬림, 그들은 누구인가?
- 제3장 기독교인은 왜 이슬람을 알아야 하는가?
- 제4장 이슬람의 교리: 그들은 무엇을 믿는가?

2부 무슬림에게도 필요한 복음

- 제5장 꾸란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 제6장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의할 내용
- 제7장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해야 할 사항
- 제8장 이슬람의 질문에 대한 기독교적 답변
- 제9장 이슬람 선교를 위해 넘어야 할 장벽들

이 책은 이슬람에 대해 철저히 문외한인 사람들도 쉽게 접근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의 설명이나 논점의 전개가 유연하고 자연스럽다. 그렇다고 하여 절대로 내용이 피상적이거나 핵심 이슈가 빠져 있다거나 하지는 않다. 책을 읽다가 보면 정말로 이슬람의 기본을 파악하게 되고, 무슬림 전도와 관련하여 어떤 식의 접근을 시도해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있게 된다.

그 다음 책 역시 한국인에 의해 쓰인 책자이다.



공일주 지음,
「이슬람과 IS」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5).

이 책의 저자는 아랍어, 아랍어 교육, 꾸란 연구 등의 분야에서 전문적 훈련을 받은 이슬람 학자이다. 책의 내용은 제목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자세해서, 단지 IS에 대한 소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다.

이 점을 알려면 책의 목차를 참조하면 된다. 총 35장으로 구성된 이 책자는 크게 보자면 4부로 나뉘어 있다.

제 1 부 현대 무슬림의 정체성 (9장)

제 2 부 이슬람의 종교의식 (7장)

제 3 부 이슬람의 교리 (9장)

제 4 부 이슬람 철학과 사상 (10장)

각 부의 마지막 장은 IS를 소개하는 데 할애되어 있지만, 각 부는 IS 소개 이전에 각각 현대 무슬림의 정체, 종교의식, 교리, 철학과 사상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얼마든지 이슬람의 신앙과 삶에 대한 — 그러나 여타의 도서보다 좀더 전문적이고 수준이 높은 — 표준적 안내서로 손꼽힐 수 있다.

이번에 선보이는 책은 이집트의 명문 무슬림 가문에서 이맘과 교수로 활동하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이의 작품이다.



마크 A. 가브리엘 지음,
최상도 옮김,
『이슬람과
서방세계의 문화충돌』
(서울: 글마당, 2009).

이 책의 저자에 대한 소개문에 접하면 책을 읽기도 전에 궁금증과 기대감이 솟구친다. 그는 전형적인 명문 이슬람 집안에서 태어나 12세에 이미

꾸란을 모두 암송했고, 이슬람 명문 교육 기관인 알 아즈하르 대학교(Al-Azhar University)에서 이슬람 역사와 문화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그 대학에서 가르치는 동시에 이슬람 모스크에서 이맘으로도 활동을 했다. 그러다가 꾸란의 가르침과 무슬림의 신앙 행습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와 모순 때문에 고민하다가 결국 36세 때 이슬람을 거부하고 천신만고 끝에 고국을 탈출한다 [이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는 또 다른 저서 『이슬람과 테러리즘: 그 뿌리를 찾아서』 (서울: 글마당, 2009), pp. 29-54에 나옴].

이 책은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SECTION 1 이슬람 문화의 출현

SECTION 2 이슬람 문화의 특징

SECTION 3 이슬람 문화의 여인들

SECTION 4 이슬람과 서방 문화 충돌

SECTION 5 문화 충돌의 미래

저자는 현재 이슬람의 경향[이슬람 신학과 사고 방식]은 서구 문화와의 충돌을 불가피하게 만들므로, 이슬람 세계 내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새로운 이슬람 신학의 정립과 전파가 요구되고, 중동 내 성공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설립 또한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저자의 주장이 얼마나 타당한지는 읽는 이 각자의 판단에 맡기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 역시 한국인의 펜으로부터 생겨났다.



김동문 지음, 『우리는 왜 이슬람을 혐오할까?』
(구리: 선울, 2015).

이 책은 한국의 교회와 사회에 만연한 이슬람포비아(Islamophobia)의 헛된 실체를 밝히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저자는 아랍 세계에서 십 수년을 살았고, 그 이후에도 25년 넘게 아랍인을 이웃하며 지내 온 아랍통이다.

저자에 의하면 한국에는 2008년 전후로 좀더 조직적이고 공격적 형태의 이슬람포비아가 등장했다고 한다. 문제는 이슬람포비아의 근거 주장들이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데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괴담”을 유포하기도 하고 “괴담”에 속아 헛된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저자의 주장은 5부에 걸친 책의 내용 가운데 자세히 나타나 있다.

- 01 보이지 않는 존재의 두려움
- 02 두려움이 커져 혐오로
- 03 이슬람 괴담 팩트체크
- 04 혐오와 배제를 넘는 첫걸음

05 더불어 살아갈 우리 이웃

물론 저자의 말에 무조건적으로 동의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만일 저자의 주장과 논리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정한다면, 우리 중 누구에게도 이슬람포비아를 키우거나 유포할 권리는 없다고 하겠다.

둘째 범주: 무슬림 사역

이 범주는 무슬림 선교/무슬림 전도를 염두에 두고 쓴 책들을 망라한다. 두 권의 책자를 소개하고자 하는데 모두 번역서이다.



샘 실로르프 지음,
김대옥 · 전병희 공역,
『무슬림 사역의 선교학적 모델』
(인천: 도서출판 바울,

저자인 샘 실로르프(Sam Schlörff)는 1959년부터 1995년까지 36년 동안 <아랍 세계 선교회>(Arab World Ministries, AWM)의 선교사로 활동했다. 이 책은 그가 1984년 <웨스트민스터 신학원>에서 신학석사(Th. M.) 학위를 위해 제출한 논문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저자는 여느 저자와 달리 이슬람 선교에 있어서 좀더 토대에 해당되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 이슬람에 대한 기독교 선교의 근본 목표는 총체적 대체인가, 성취인가, 대화인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가?

-- 이슬람을 포함해 타종교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며, 또 이것은 우리의 접근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무슬림 문화 가운데에는 복음 전도를 위해 타당한 접촉점이 될 만한 단서가 있는가?

이 책자는 총 3부로 구성되었는데 그 제목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역사적 개관: 여섯 가지 상황화 모델들

서론에 해당하는 이곳에서 저자는 19세기 및 20세기 무슬림들을 사역 대상으로 하여 개신교 선교사들이 사용한 여섯 가지 모델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II. 근접 고찰: 방법론과 도구들

2부에서 저자는 이러한 모델들이 사용하는 방법론과 도구들을 좀더 자세히 검토한다. 예를 들어, 꾸란 사용에 대한 접근 방법들을 논하는 데 3장을 할애하고, 특히 꾸란을 어떤 의미에서 계시적으로 간주하는 “새로운 해석학”의 문제점을 다룬다. 마지막 장에서는 무슬림에 대한 교회 사역에 있어서 C5 혹은 “역동적 등가” 접근 방식을 고려하는데, 저자는 이 접근법의 역사적 발전, 모델 뒤에 자리잡은 세 가지 이론들, 이 논의에 있어서 주된 기여자들의 주장점을 언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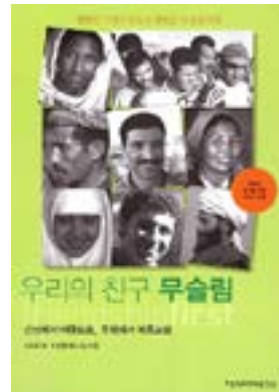
III. 성서신학적 상황화 모델을 향하여

마지막 섹션에서 저자는 자신의 제안인 바 “약혼”(betrothal) 모델에 대한 기초를 놓는다. 그는 선교의 주된 목표를 복음의 선포로 보되 무슬림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된 테마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타종교에 대한 신학적 평가에 있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또 전도를 위한

신학적 출발점은 꾸란이나 무슬림 문화가 아니라 오직 성경이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그리고 나서 꾸란의 해석에 있어 꾸란의 관점과 성경의 관점을 함께 병합하려는 “종합적” 접근법을 비판한다. 저자의 모델은 선교에 대한 접근법, 종교 신학, 신학적 출발점, 초문화적 해석 및 교회적 전략 등에 대한 저자의 입장을 응축해 놓았다고 할 수 있다.

샘 쉴로르트의 책자가 일차적으로는 무슬림 사역에 대한 선교학적 성찰서이지만 동시에 모든 선교 사역에 동반되는 부대적 이슈들을 고찰하는 데에 있어서도 유용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무슬림 사역에 관한 또 다른 도서는 이슬람 선교 전문가의 안내서이다.



스티브 벨.
이슬람파트너십 지음,
『우리의 친구 무슬림』
(서울: 이슬람파트너십
및 IVP, 2016)..

이 책자의 원저자인 스티브 벨(Steve Bell)은 현재 <인터서브> 영국 및 웨일스 지역의 대표이다. 그는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주로 이슬람학을 공부했고, 약 40년 간 선교 분석가 저술가 훈련가로서 봉사해 왔다. 공저자로 되어 있는 이슬람파트너십은 26개 단체와 개인의 연합체로서 이슬람 선교의 전문성 개발을 목표로 2010년 결성되었다. 상기 책자의 내용은 대부분 스티브 벨이 꾸렸고, 내용을 한국 상황에 적합하게 조정한 것은 이슬람

파트너십의 역할이라고 생각된다.

이 책자의 원제는 Friendship First (「우정이 먼저」)로서, 평범한 무슬림에 대한 우정 전도를 목표로 꾸며졌다. 사진과 도표가 많고 표현이 간명하지만 내용의 전문성만큼은 전혀 희석되지 않은 뛰어난 작품이라고 하겠다.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부 이슬람은 무엇인가?
- 2부 복음 증거의 장벽
- 3부 우정에서 복음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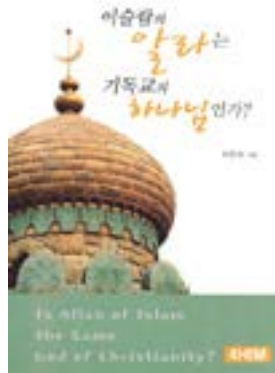
무슬림과의 우정, 사랑, 전도 등을 함께 고려한다면 최선의 안내서가 될 것이다.

셋째 범주: 알라와 하나님

마지막 범주의 책들은 오늘날 신학적으로 또 선교학적으로 가장 논란이 큰 이슈를 다루고 있다. 이 이슈는 한 마디로 해서 무슬림이 믿는 “알라”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동일한 신인가 아닌가의 문제이다.

우선 처음에 소개할 책자의 저자는 한국인인데, 그는 상기 문제에 대해 단호히 “아니오!”라고 응수한다.

저자는 이란 선교사로 약 20년 가까이 사역했고 현재는 이슬람의 정체를 알리기 위해 4H1M이라는 단체를 설립해서 활동하고 있다. 이 책자에 흐르는 저자의 논조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특히 마지막 6부 “알라의 영”에서는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못박고 있다



이만석 지음,
「이슬람의 알라는 기독교의 하나님인가?」,
수정판
(서울: 4H1M, 2013).

상기 이슈에 대해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신학자 볼프이다. 그는 무슬림과 그리스도인이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로슬라브 볼프 지음,
백지운 옮김,
「알라: 기독교와 이슬람의 신은 같은가?」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2016). 2016).

볼프(Miroslav Volf)는 아다시피 전 세계의 신학계에서 인정을 받은 독보적 존재이다. 동유럽의 크로아티아 출신으로 오순절 계통의 목회자 집안에서 자라났는가 하면, 미국 풀러신학원에서 수학했고, 독일 튀빙겐 대학교에서 몰트만의 지도 하에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여러 저서가 있지만 한국에서는 특히 「배제와 포용」(2012년 IVP 간)의

로 많이 알려져 있다.


볼프는 상기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과 무슬림이 같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전쟁과 참화로 얼룩진 과거의 역사와 테러와 보복의 쳇바퀴를 벗어나지 못하는 오늘날의 가학적 상황을 우려하며, 자신의 정치 신학적 아젠다가 기독교와 이슬람 사이에 조금이라도 더 화해와 평화로운 공존을 현실화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이 책을 저술했다. 「알라」는 볼프의 신학적 예리함과 인간의 사회적 삶에 관한 불굴의 비전과 소신이 함께 묻어나는 역작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결국 이 논의의 타당성 여부(및 정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설명에 달려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삼위일체 교리를 신앙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무슬림은 이 교리 때문에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판에, 이 문제를 쉬쉬한 채 양편이 같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사안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우선, 그리스도인 편에서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다. 논의의 초두에 볼프는 하나님의 단일성과 복수성에 관한 설명에 있어서 니콜라우스 쿠자누스(1401-1464)의 네 가지 명제들을 소개한다 (p. 75). 그 가운데 첫째 항목이 “단일성(unity)은 모든 복수성(plurality)에 선행하며, 모든 복수의 근원이다”로 되어 있는데, 필자로서는 이 명제가 왜 참인지, 또 무슨 의도로 이런 명제를 제일 앞에 내세우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것은 나 자신의 이해 부족일 수도 있고, 쿠자누스의 제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양자 모두일 수도 있다.)

삼위일체 교리를 언급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측면은, 과연 이슬람 쪽에서도 자신들이 그리스도

인들과 같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느냐 하는 것이다. 볼프는 꾸란의 근거를 들어 그렇다고 말한다. 특히 니콜라우스는 꾸란이 삼위일체를 ‘전제’한다고 믿었다(p. 78)고 되어 있다. 니콜라우스의 신념이 갖는 타당성이나 볼프의 주장이 얼마나 이슬람계에서 받아들여지는지 판정하는 일 또한 필자의 역량을 벗어나는 일이기에, 무어라 소신 있게 말할 수가 없다 (많은 복음주의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쨌든 이것은 필자 편에서 더 알아보고 연구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이런 점을 제외한다면 볼프의 논변과 제시는 눈부실 정도로 멋있다. (특히 내가 읽은 바로 삼위일체론에 대한 그의 설명은 매우 정통적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인과 무슬림의 같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볼프의 주장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설명의 일부에 개재된 미심쩍은 내용과 또 나 자신의 역량 부족 때문에, 흔쾌한 동의를 표하지는 못할 것 같다.

이미 이슬람과 무슬림 문화는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 있다. 복음주의자로서 우리가 이슬람 세계에 대한 자세와 입장은 어때야 하는지, 또 무슬림에 대해 어떤 선교적 방침과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냉철히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할 때가 되었다. 

.

“버킷리스트”



최충희 (작가)

미국 세인트루이스 한인장로교회에서 사모로 섬기다가 2000년 미주 교양지 《광야》에서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현재는 은퇴한 남편과 함께 영구 귀국해 여수에 살면서, 전남대 평생교육원에서 심리치료를 공부하며 상처 입은 이웃들을 섬기고 있다.

잭 니콜슨과 모건 프리먼 주연의 〈버킷리스트〉(The Bucket List)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지는 못했지만, 영화가 유명해진 후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세간에 회자되어 알게 되었지요. 버킷리스트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을 적어 놓은 목록을 의미합니다.

버킷리스트! 만일 여러분이 버킷리스트를 만든다면 어떤 것들을 적어 넣으실지 궁금하네요. 저의 버킷리스트도 궁금하시다구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문득 첫 번째로 떠오른 장면이 있는데요, 사실 평소 생각해 보지 않은 엉뚱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번지점프입니다! 왜 번지점프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장면이 번지점프였습니다.

제가 평소 즐기는 운동은 걷기와 수영입니다. 수영을 따로 배운 것은 아니고 옆 사람들을 보고 따라 하다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허우적거리고 애를 쓰다가 개구리 수영, 모잠비 수영, 그리고 자유형도 할수 있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발이 바닥에 닿지 않을 때면 가슴이 철렁하고 바짝 긴장하곤 했지요. 그래서 언제라도 손을 뻗으면 안전대를 붙잡을 수 있는 곳에서만 수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대답해지면서 깊은 곳에서도 여유 있게 다니게 되었고 우쭐해진 저

는 그럴듯한 품을 잡으면서 수영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수영이 있습니다. 어떤 유형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예, 저는 배영을 못합니다. 배영은 몸을 뒤집어서 하는 수영이지요. 수영하는 분들 말로는 배영처럼 쉽고 편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물에 누워 유유자적 노를 젓듯 수영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몇 번 시도해 보았는데, 생각과 달리 물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지요. 수영장의 멍멍한 물이 콧속으로 들어가 쉼쉼거리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몇 번을 시도해도 자꾸 실패하니, 결국 배영은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왜 다른 수영은 그런대로 하면서 배영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지 못하는지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신뢰'에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물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몸을 완전히 물에 맡기고 힘을 빼야 부력에 의해 뜨게 되는데, 물이 나를 떠받쳐 주지 못할 것이라는 불신과 두려움이 제 마음 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혹시 제 신앙생활에도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불현듯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훈련된 익숙한 수영, 무엇보다 물 위에 얼굴을 내놓고 앞의 상황을 살필수 있는 수영스타일은 상황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심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배영은 물위에 누우면 앞을 볼 수 없고, 위만 바라보게 됩니다. 게다가 손을 잘못 저으면 몸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지요.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떤 모험도 하지 않고 안전지대에서만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것은 잘 감당지만 주님의 능력에 모든 것을 맡기고 전폭적인 신뢰와 믿음이 필요한 상황이 닥치면 의심과 두려움에 빠지는 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마치 배영을 하다가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부력의 속성을 믿어야 물위에 누울 수 있듯이,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믿고 신뢰해야 은혜의 강물 물에 가볍게 몸을 누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유롭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버킷 리스트를 생각하면서 번지점프를 떠올린 이유가 아마 이것이었나 봅니다. '온전한 신뢰를 회복하고 싶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회복하고 싶은 영적 열망이 배영보다도 모험정신을 더 필요로 하는 번지점프로 이미지화 되어 떠오른 것이 아닌가 합니다.


허공을 향해 몸을 날릴 때 100퍼센트의 신뢰가 없다면 아무도 용감하게 뛰어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용감하게 몸을 던질 수 있는 것은 세심하고 과학적인 안전 장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뛰어내리는 사람은 그 안전장치에 대한 신뢰와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아무리 멋지게 날개짓을 하고 몸을 날려도 안전장치가 부실하면 그대로 떨어져 죽게 됩니다.

배영을 할 때도 마찬가지겠지요. 몸을 뜨게 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물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물의 속성을 믿고 맡길 때 배영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믿으면, 우리는 그 안전장치에 모든 것을 맡기고 영혼의 번지점프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버킷리스트로 번지점프를 꿈꾼 것은, '온전

한 신뢰에 대한 도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00퍼센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고 용감하게 고공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것, 나의 힘을 빼고 오로지 하나님의 선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온전한 신뢰를 회복하고 싶다는 영적 열망이 저로 하여금 뜬금 없이 번지점프를 떠올리게 했다고 생각을 정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도 저와 함께 '영혼의 번지점프'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의 말씀과 완전무결한 사랑의 안전장치가 장착되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뭘 준비되셨나요? 하나, 두울, 세엿!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 15:4-5) 



삶을 위한 성경 강해: 요한계시록(4)



이우제 (백석대학교 교수)

백석대학교 실천신학 대학원 원장이자 실천신학(설교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총신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M.Div)를 하고 미국 칼빈신학대학원에서 신학 석사(Th. M)과 남아공 스텔렌보쉬 대학교에서 신학박사(Th.D)학위를 받았다. 하나님 나라의 대안적 음성을 밝히는 설교를 꿈꾸는 설교학자이자 설교자이다. 저서는 「테마가 있는 설교」(대서)와 「구속사적 관점으로 본 내러티브 설교 형식 개발」(공저, 대서)가 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 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계 2:1-7)

디모데 후서 3장16-17절에 보면 성경이 과연 어떤 책이고 또한 그 성경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알려주고 있다. 먼저 16절에서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설명해 준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신적인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은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교훈을 주고, 때로 책망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올바른 길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한 사람들을 의로 교육하기도 한다. 우리들이 16절은 익숙하다. 그러나 17절은 종종 소홀히 다룬다. 17절을 잘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

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17절은 성경이 신자들을 어떤 사람으로 세우는지를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 다음으로 선한 일을 하게 한다. 먼저, 온전케 한다는 것은 주로 성도들의 내적인 부분에 변화를 받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다. 다음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구비케 한다는 것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나 열매들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된다. being과 doing의 변화,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중요하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결여된다면 결코 성숙한 신자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순서이다. 두 가지가 모두 성숙한 신자의 표지인 것을 맞지만, 내적인 변화를 거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야만 한다.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이 말씀으로 변화된 증표인 것이다. 그렇다

고 해서 모든 선한 행동이 내적인 변화의 결과로만 들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선한 일을 행하기는 하지만, 내적인 변화는 전혀 없는 상태로 행동할 수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언뜻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보자.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만 해당하는 덕목이 아니다. 모든 고등 종교가 다 그것을 추구해 간다. 어떤 경우에 불교 신자들이 기독교인들 보다 더 긍휼이 풍성할 때가 있다. 이슬람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더 경건한 모습으로 드러날 때도 많다. 외적인 행동만을 가지고는 어느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보증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외적인 변화가 주님과 만난 내적인 변화 과정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오늘 에베소 교회는 외적으로 많은 선한 일을 행한 교회이다. 여러 가지 장점으로 인하여 칭찬할 만한 것이 많은 교회이다. 그러나 아직 위대한 교회는 아니다. 좋은 교회가 목표라면 에베소 교회는 나름대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교회이다. 그러나 위대한 교회로 인정받기에는 결정적으로 내적인 것이 부족한 교회이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우리가 심심치 않게 접하는 문구이다. 교회의 목표도 마찬가지이다.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이다. 이면에서 에베소 교회의 메시지는 어떻게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 준다. 자!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교훈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자.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이것이다.

주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쓰는 좋은 교회

에베소 교회는 주변의 거짓된 가르침으로 기독교 신앙을 지켜낸 교회이다. 교리에 정통한 교회이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정통 보수파 교회 정도 될 것이다. 꽤나 유서 깊은 신앙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다. 성도들이 성경 지식으로 제대로 무장되어 있는 꽤나 수준 있는 교회이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볼 때, 에베소 교회는 주님에게 칭찬 받아 마땅한 교회처럼 보인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 우리의 예상대로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를 알고 계신다.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인정하신다. 칭찬해 주신다. 칭찬의 내용이 2:2-3절에 잘 소개되어져 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이 이 정도 칭찬 하신 교회도 드물다. 확실히 에베소 교회는 평균 수준을 넘어서는 교회인 것이 분명하다. 소위 말해서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로 말씀 드리면 주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구비한 교회라고 할 수 있다. 좋은 교회의 중요한 특징을 구비한 교회이다.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가 주님에게 칭찬 받는 모습을 통하여 주님을 위하여 선한 사역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결코 첫 번

째 메시지가 전부는 아니다. 외적으로 선한 사역을 행하는 것이 전부였다면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 호된 책망을 하실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장점은 그대로 계승하되, 무엇인가가 잘못된 것을 고쳐야만 위대한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기에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분명하다. 주님의 책망 속에 담겨진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나아가는 두 번째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님을 향한 사랑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위대한 교회

비록 주님께서 외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선한 사역에 대하여 칭찬하시지만,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신다.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한 선한 일이 얼마든지 주님을 향한 첫 사랑을 잃어버린 채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신다. 나름대로 좋은 장점이 많았던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선한 사역만 가지고는 좋은 교회는 될 수 있어도, 위대한 교회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가지고 말해 본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일이 없이 선한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주님을 향한 첫 사랑을 잃으면 주님을 향한 선한 사역도 중단되어야 마땅하지만, 언제나 그렇게 귀결되지는 않는다. 에베소 교회의 실례처럼, 내적으로 주님과의 첫 사랑을 잃어버렸음에도 외적으로 선한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 주님과의 지속적인 사랑이 중단된 채 행해지는 선한 사역들은 의무감으로 행하는 사역이다. 위선의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다.

물론 에베소 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첫 사랑을 잃

어버린 것은 아니다. 처음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감격적으로 만났다. 그 감격으로 인하여 밥을 굶어도 행복한 날들을 보내게 되었다. 주님과 나누게 된 첫 사랑의 달콤함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만들어 내었다. 주님을 위하여 선한 역사에 힘을 쏟아 부었다. 만만치 않은 수고가 해야 했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도 힘든 줄 모르고 그 분이 원하시는 사역에 헌신했다.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단호히 이단을 거절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러한 주님을 향한 첫 사랑은 점점 빛을 잃어버리게 된다. 에베소 교회가 점차로 초심을 잃게 된 것이. 외적으로 변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 외적으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화려하고 더 그럴싸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과의 “내적인 관계”에 있다. 어느 순간에서 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점차로 그들의 내면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된다. 점점 더 종교인이 사는 자리에 익숙해진다. 주님과의 나누었던 짜릿한 사랑의 관계는 시들해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곧 우리의 모습을 예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도 어느 순간에서 부터인지 첫 사랑을 잃어버리고 만다. 흥미로운 것은 첫 사랑을 잃어버렸지만, 외적인 활동은 더 요란해 진다.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부산한 움직임으로 주님을 섬기게 된다. 더욱이 안타까운 점을 첫 사랑을 잃어버렸지만 주님을 위한 사역에 불편함이 없어진다. 타성에 젖게 된다. 익숙해진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질문하게 된다.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


인가?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에 대한 답은 분명하다. 첫 사랑의 아름다운 시절로 되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다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던 그 신선한 봄날로 되돌아가야만 한다. 그 때 우리는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위대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올바른 적용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나아가라는 교훈에 대하여 올바른 적용이 필요하다. 내적으로 주님과 첫 사랑을 잃어버린 채, 외적인 활동과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들이 엉뚱한 결단을 하는 경우가 있다. 내적으로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주님을 위한 일을 하게 될 때, 즉각적으로 내 자신이 너무나 위선적이라고 느끼게 된다. 그 때 많은 신자들은 괴로워한다. 그러다가 이렇게 판단하기에 이른다. 그동안 행해왔던 일체의 “선한 행위”를 중단하는 것을 답으로 찾는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잘못된 답안지인 것이다. 예를 들어 보겠다. 어느 성도가 구역장으로 봉사한다. 그런데 도대체 내적으로 아무런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다. 매주일 구역장 하는 것이 너무 힘겹다. 의무감으로 하기는 하는데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란 없다. 그러다 보니 영혼들을 향한 사랑은 더더욱 없다. 이러한 상태로 괴로워한다. 그러다 급기야 어디로 가는가 하면, 구역장 그만 두는 쪽으로 결단하게 된다. 그러한 판단이 매우 양심적인 듯 보이지만, 올바른 적용은 아니다. 내 심령에 주님과 첫사랑이 없다고 선한 행위 자체를 아예 중단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첫 사랑을 회복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사랑 없이 행하는 선한 사역이기에 보기에 따라서 위선적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에베

소 교회가 행한 선한 행위를 칭찬하고 계신다. 선한 사역에 힘쓰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아니 우리들은 억지로라도, 위선적이라고 느껴질 지라도 끝까지 선한 일을 계속해야만 한다.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 선한 사역을 내려놓은 것이 대안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몸부림치고 고쳐야 할 영역은 첫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내적인 우리의 상태인 것이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좋으신 주님께 첫 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청하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고 싶다. 우리의 문제는 첫 사랑이 없는 것이지 선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첫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한탄해야지, 주님이 맡겨주신 선한 사역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결코 아니다. 아무리 우리 모습 때문에 죄책감이 느껴져도 우리가 행하는 사역들, 교회 안팎을 섬기는 봉사들, 세상을 향한 선행들을 계속 되어야 한다.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주님이 그것을 귀하게 칭찬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참으로 아파해야 할 부분은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사랑으로 타오르지 못하는 것이다. 어디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를 깊이 생각해서 다시금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 것이다.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우리들의 심령이 주님의 사랑으로 지속적으로 불타오를 때 가능하다. 그 결과로 선한 사역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다.

“주님 잃어버린 첫 사랑의 감격을 회복한 사람으로 주님의 선한 사역에 쓰임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Our World Belongs to God)



심재승 교수 (돌트칼리지 교수)

칼빈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칼빈신학교에서 신학석사를 하고 조직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아이오와 소재 돌트 칼리지(Dordt College)에서 신학교수로 재직중이며, 기독교 교육, 기독교대학 교수 훈련과 공공신학에 관련하여 일하고 있다

이번 호 부터 북미개혁교회(*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 교단에서 발행한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Our World Belongs to God)』를 연재합니다. 개혁주의적인 신앙을 현재의 사고와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하여 살 것인가를 다룬 문서로 한국 교회에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연재합니다. 소개는 이 책을 한국어로 번역한 돌트칼리지(*Dordt College*)의 심재승(신학) 교수가 맡았습니다. 이 문서의 한글 전문은 "<https://www.crcna.org>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에서 볼 수 있습니다.(편집자)

우리는 믿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할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잘 믿으면 그대로 행동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신앙과 실제 행동 사이의 괴리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산다. 그 이유는 많지만, 가장 큰 이유는 기독교적인 사고와 행동의 일치가 습관화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우선, 문화는 수백 년에 걸쳐 오면서 매우 강력한 반기독교적인 삶의 체계를 구축해 왔다. 그러한 반기독교적인 문화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자동적으로 삶에 구현되리라고 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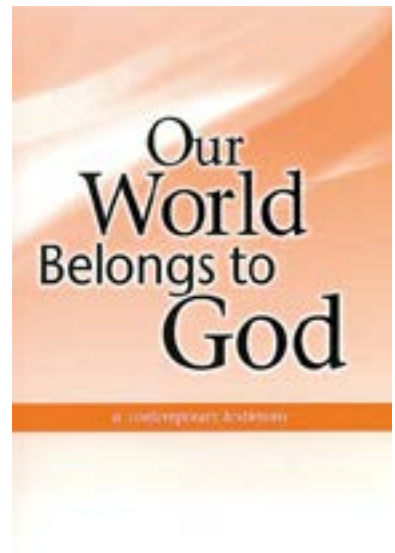
각하는 것은 매우 천진난만한 기대이다. 굳어진 몸을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운동이 필요하다듯이, 오래 굳어진 세속적인 생각이 기독교적으로 바뀌려면 지속적인 생각과 행동의 훈련이 필요하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사적인 영역으로만 한정하여 신앙인의 삶을 사회로부터 스스로 격리시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개인 구원의 방법, 축복받는 통로쯤으로 치부되고, 복음 자체가 요구하는 새 사람으로 사는 건강한 삶, 구속이 추구하는 공의와 사랑이 실천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스스로 포기되거나 축소되었다. 필자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삶에 관련하여 두 가지 이슈가 떠올랐다. 하나는 세속적인 문화가 일관적이고 철저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철저하게 일관적인가 하는 이슈이다. 다른 하나는, 좀 더 근본적인 것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을 삶에 그대로 구현해 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연재를 읽고 이러한 이슈들에 관심을 가지기를 기대한다.

지금부터 연재할 문서는 북미개혁신교회 (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에서 출판하여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Our World Belongs to God).”이다. 이 교단에는 16세기부터 작성되어 사용하고 있는 세 개의 표준신앙고백인 벨직신앙고백,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리고 돌트신경이 있다.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문서는 1986년도에 이 교단에서 채택하여 출판하였고, 2008년도에 수정된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현대 신앙문서 (Our World Belongs to God: Contemporary Testimony)”라고 부르는 신앙지침서이다. 이것은 전통적인 표준신앙고백을 대체하지 않으면서, 그러한 전통적인 신앙고백을 가지고, 빠르게 세속적으로 기술적으로 변화하며 개인주의화하는 현대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해설한 신앙의 지침서이다. 이 문서는 “신앙고백이 아닌, 신앙을 표현하는 현대의 역동적인 문서로 활용되기” 위하여 작성되어서 현재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사용되고 있다.¹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는 교회 문서치고는 매우 평상 언어로 쓰였다. 그래서 자세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주목하여 볼

것은 성경해석-> 세계관과 영성의 형성-> 삶의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는 양식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개혁주의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특별히 성경을 어떻게 읽어서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문서에서 “세계관”이나 “영성”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다. 그러한 개념들이 어떻게 문서 전체에 녹아 스며있는지 살펴보기 바란다. 그러한 개념들은 공부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풀어가는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문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서문 (단락 1-6), 창조 (7-12), 타락 (13-17), 구속 (18-22), 그리스도 (23-27), 성령 (28-30), 계시 (31-33),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34-40), 하나님의 백성의 소명 (41-54), 새 창조 (55-58). “창조”로부터 “성령”에 이르기까지의 30개 단락은 성경의 구속역사를 요약한 것으로서, 이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과 방향을 규정하는 기초를 제공한다. 어찌 보면 이 문서의 결론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34-40)”과

“하나님의 백성의 소명(41-54 단락)” 일 수 있다. 전자는 현대 문화에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의미를 해설하고, 후자는 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해설한다. 그러나 결론적

인 삶의 내용만큼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성경이해로부터 신앙고백, 그리고 세계관과 영성의 형성에 이르는 기독교적인 사고의 과정이다.

서문 (Preamble)

1

이 세상을 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로서, 이 세상을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절망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선언한다. 우리의 세상이 하나님의 것임! ¹

2

태초부터 우리 시대의 모든 위기를 지나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도래할 때까지 하나님은 영원히 그의 언약을 지키신다.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온 땅이여, 기뻐하라! 그리스도께서 승리자로서의 다스리심을 시작하셨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창조세계는 새로워졌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라! ²

3

절망과 함께 완고한 교만함이 지금도 세상에 가득차 있다. 어떤 이들은 실패함으로 부서지거나 고통으로 말미암아 망가져서 삶과 소망과 하나님을 포기하였다. 다른 이들은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인간적인 승리를 여전히 갈망하면서 그들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분투한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세상의 풍조에 대항하며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으로 그 풍조를 분별하면서 우리도 또한 이 세상의 풍조와 싸우고 있다. ³

4

우리의 세상은 죄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원래의 선함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우리의 창조주께서는 계절의 변화와 햇빛과 비를 보내시면서 모든 창조물을 지탱하시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면서 구세주를 약속하시면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그 만드신 목적으로 인도하시면서 이 세상을 보존하신다. ⁴

5

하나님께서서는 크나큰 사랑으로 이 세상을 붙잡고 계신다.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며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새로운 창조세계의 첫 열매로 다시 살 수 있는 복음을 선포하신다. ⁵

6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기뻐하면서 어둠의 일들을 버리고 우리 자신을 성결한 삶에 헌신한다. 언약의 파트너로서 기쁨으로 순종의 삶을 살도록 자유를 회복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명을 드린다.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불의가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는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린다. 우리는 확신한다. 현재의 어둠 속에 비치는 빛이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온 세상에 충만할 것임을. 오소서, 주 예수여! 우리 세상은 당신의 것이옵니다. ⁶

서문 해설

서문은 이 문서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고 그 흐름을 제시한다. 시작부터 두드러지는 것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다. 그러한 고백이 단락 2와 5에 삼위일체적인 양식을 따라서 쓰였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왕이시며, 그리스도가 승리자로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펼치신다. 단락 5에서는 창조세계를 포기하지 않으신 성부 하나님의 섭리, 언약 안에 그리스도를 보내어 구속하심,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심을 강조하며 온 세상 위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고백한다. 삼위일체적인 구속사의 이해는 의식적으로 성경 전체를 조망하려고 노력한다. 그 결과로 선한 창조→죄로 인한 세상 전체의 망가짐→세상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 그리고 창조원리를 유지하고 새롭게 하심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광범위한 구속 안에 인간의 구속이 있다. 인간의 구원의 이야기는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의 광범위한 구속사 안에서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은 결국 인간중심적인 구원의 요구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광범위한 구속의 범위 안에서 이 문서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양식을 따라서, 개인적인 터치를 포함한다. 죄의 결과로 삶에서 경험하는 절망, 실패, 고통, 그리고 흔들리는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풍조와 싸우고 있다” (단락 3).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모든 창조물을 지탱하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면서… 그 만드신 목적으로 인도하시면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기 때문이다 (단락 4).

창조세계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 우리의 구속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한다.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며 성령을 부어주신다…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 받는 “복음을 선포하신다(단락 5).”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구원의 개인적인 요소이다. 이 내용은 “그리스도(단락 23-27)”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거기 그리스도는 “유일한 중보자”로서 “우리의 죄과를 지불하셨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세주는 없다”라고 명백하게 기록한다(단락 26). 그것이 성경 구속사에서 중심적인 것은 당연하지만, 그 위치와 의미를 창조로 시작하여 새 창조에 이르는 전체 구속 안에서 찾아야 한다.

그리고 서문의 마지막인 단락 6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으로 새로워진 백성이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제시한다. 우선 구속받은 백성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언약의 파트너”이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대사이다. “기쁨으로 순종의 삶을 살도록 자유를 회복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명을 드린다.” 요구되는 “성결한 삶”과 “순종의 삶”은 교회적인 활동으로 제한되지 않고 삶 전체로 연장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문서는 적극적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라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범위를 제시한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불의가 사라지기까지 간절히 바라면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명하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이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요구하기 때문이다(단락 1-4). 이것이 복음의 공공성이며 복음의 능력이다. 복음은 거듭난 새

생명을 부여한다. 그리고 그 새 생명이 삶에서 살 책임을 강조한다. 복음이 부여한 자유는 죄로부터의 속박을 의미하면서 또한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살 삶의 양식도 의미한다. “자유를 회복한 우리는… 을 위하여… 을 드린다.”는 문장의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여받은 자유는 이웃과 하나님을 섬길 목적으로, 스스로 자유롭게 포기하기 위하여 주어졌다. 섬기기 위한 자유로운 자유의 포기, 그 가장 아름다운 예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삶이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자유를 자유롭게 포기하는 헌신의 삶, 복음의 공공적인 책임을 사는 삶, 그것은 종교개혁자들의 “삶이 곧 예배이다”라는 가르침에 잘 요약되어 있다.

시대를 분별함에 대해서 살펴보자.

5. 창세기 3장, 9:8-16, 시편 104편, 특별히 30절, 마태복음 5:45, 그리고 사도행전 14:17을 살펴보자. 구세주를 약속하심에 대하여 창세기 3:15, 이사야서 7:14, 11:1-5, 42:1-7, 53장, 그리고 미가서 5:2을 보라.
6.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하여 호세아 11장, 특별히 10-11절을 살펴보자. 복음의 메시지에 대하여 요한복음 3:1-21, 사도행전 2:36-39, 로마서 10:7-11, 그리고 에베소서 2:1-10을 보라. “첫열매”에 관하여 레위기 23:9-14와 야고보서 1:18을 보라.
7. 이 단락의 내용을 위해서 마태복음 5:17-20, 48, 요한복음 1:1-5, 9-13, 3:19-21, 로마서 12:1-2, 갈라디아서 5:1, 13-25, 데살로니가전서 4:16-5:11, 베드로후서 3장, 요한일서 2:7-11, 그리고 요한계시록 22:20을 살펴보자. 

1. 이 부분은 이 책의 머리말에서 인용했다.

2.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되심을 시편 24:1 (고린도 전서 10:26에서 인용함), 욥기 41:11, 그리고 신명기 10:14에서 보라.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관리하도록 인류에게 주신 “우리의 세상”은 또한 창세기 1-2장에 기록된 창조기사의 주제 중의 하나이다.

3.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시편 89, 117, 145편, 로마서 8:31-39, 히브리서 10:23을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승리하심에 대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5:54-57, 빌립보서 2:9-11, 요한계시록 1:13-18을 보라.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창세기 1장과 로마서 8장을 보라.

4. 시편 2편은 반역적인 인류의 풍조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로마서 1-3장을 살펴보자. 에베소서 6:10-17은 세상의 풍조에 대항하는 성도들의 싸움을 설명하고 있다. 요한일서 4장에서

WORLDVIEW NEWS

[북 토크 콘서트] 손봉호 교수의 신간

《주변으로 밀려난 기독교》

“우리는 누구인가 : 기독교세계관 운동의 자리”

- 일시 : 2018년 4월 27일(금), 저녁 7:00-9:30
- 장소 : 100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 4층
- 출연 : 손봉호(고신대 석좌교수,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외 초청 패널 2인 이상
- 홈페이지 : info@worldview.or.kr.
- 전화 : 02-754-8004, 02-3272-49672.

[학술대회] 2018년 춘계학술대회

- 일시 : 2018년 5월 26일(토), 10:00-18:00
- 장소 : 백석대학교(천안)
- 주최 :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독교학문연구회
(대표: 유재봉 교수, 성균관대)
- 주제 : “4차 산업혁명과 기독교적 대응”
- 발표주제 : “4차 산업혁명과 교회의 대응”
“4차 산업혁명과 학교의 대응”
“4차 산업혁명과 사회의 대응”
- 논문발표 문 의 와 신 청 : 대학원생 이상의 기독교인 가능
- 홈페이지 : info@worldview.or.kr.
- 전화 : 02-754-8004, 02-3272-4967.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 및 임원

이사회	이사장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부이사장	김의원 ((前)총신대 총장), 양인평 (법무법인(유)로고스 고문)
	이사	김승욱 (중앙대 교수), 송인규 (한국 교회탐구센터 소장), 신국원 (총신대 교수), 양승훈 (VIEW 원장), 오정호 (새로남교회 목사),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전광식 (고신대 총장), 정희영 (총신대 교수),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 조성표 (경북대 교수), 조영길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대표), 조정민 (베이지교회 목사)
	감사	박문식 (한남대 교수)
실행위원회	위원장	박동열 (서울대 교수)
	위원	강진구 (고신대 교수), 김대인 (이화여대 교수), 김미영 (한국 소토 대표), 김승욱 (중앙대 교수), 김지원 (백석대 교수), 김혜정 (CUP 대표), 문준호((재)스마트IT융합시스템연구단 연구부교수), 손병덕 (총신대 교수), 유경상 (CTC 대표), 유재봉 (성균관대 교수), 이우성 (STEPI 박사), 이재희 (가천대 교수), 장수영 (포스텍 교수), 정희영 (총신대 교수), 최용준 (한동대 교수)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후원회원신청서

본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보내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톡ID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이메일 info@worldview.or.kr |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신청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후원금액 및 방법 선택

후원금액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2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
후원방법	<input type="checkbox"/> 매월 CMS 자동이체 <input type="checkbox"/> 매월 직접 입금 <input type="checkbox"/> 연후원금(12개월 분) 일시 납부				

CMS 신청자만 기록해주세요. ※ 신청자와 예금주가 다른 경우, 필히 예금주의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이체일	<input type="checkbox"/> 25일	<input type="checkbox"/> 30일
예금주와의 관계	예금주 휴대전화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 사업자(고유)번호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동의를 잘 읽고 **동의함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자동이체 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CMS 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 청구를 통한 요금 수납
- 수집항목 (개인정보):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 이용 동의일 부터 CMS 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청구 종료일(해지일)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함** ☐ **동의안함** ☐ (고유식별정보) **동의함** ☐ **동의안함**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씨엠에스코리아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효성에프엠에스 ☐ 이시스엔터프라이즈(주)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CMS프로그램 제공, CMS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CMS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청구로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 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납기관이 ☐ 씨엠에스코리아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효성에프엠에스 ☐ 이시스엔터프라이즈(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 통지 안내]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시지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 결제정보제공자 :
(예금주 또는 가입자)

(인) 또는 서명

※ 신청인과 결제정보제공자(예금주 또는 가입자)가 다른 경우, 반드시 결제정보 제공자(예금주 또는 가입자)의 서명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